

하늘 호수

신영철

북경여행사 왕푸칭 사장의 전화를 받은 곳은 학교 도서관이었다. 조용한 분위기에 신경 쓰여 밖으로 나오니 뜨거운 열기가 훅—달려 든다. 왕사장이 내게 전화를 건 용진은 가이드 겸 통역으로 티베트를 갔다 오라는 말이었다. 지난달에 개통되어, 전 중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칭짱 철도를 타고 가는 여행이라고 했다.

왕사장의 말을 듣고 나는 내심 놀랐다. 왜냐하면 그 기차표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알기 때문이다. 중국의 각종 보도 매체는 열을 올려 이 철도의 개통을 홍보하고 있었다. 이곳 미디어들은 사회주의 속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 관영매체답게 이 철도의 개통을, 현대 중국의 눈부신 과학적 업적으로 홍보하고 있



현재 《사람과산》 편집위원. 미주 《한국일보》 문예공모 소설부문 당선. 저서로는 『히말라야 이야기』와 2005년 문학사상사 제52회 장편소설 부문에 당선된 『가슴 속에 핀 에델바이스』가 있다.

었다.

자세한 상황을 듣기 위해 사무실로 방문하겠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다. 그건 흥미로운 제안이었다. 금단의 땅, 은둔의 땅, 세계의 지붕이라는 수식이 낯설지 않은 곳이 티베트였다. 그 엄청난 높이의 고원을 기차 타고 횡단한다니. 티베트는 이미 한국 손님을 인솔하여 두 번 가 본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티베트와 인접한 ‘칭두’에서 비행기를 타고 간 것이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티베트 고원은 다른 땅과 다를 게 없었다. 다만 하얗게 만년설을 이고 있는 쿤룬 산맥과 히말라야 연봉이 인상적이었을 뿐이었다. 문명과는 거리가 먼 그 높은 고원을 기차 타고 넘는다는 여정에 슬며시 구미가 당겼다.

그러나 가을 학기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이 어떻게 궁금했다. 나는 날짜를 쏙아 보았다. 석사 과정 마지막 학기가 9월에 시작 되니 여행과 겹친다면 아쉽지만 갈 수 없다. 왕사장이 전화 한 걸로 보아 한국에서 오는 관광 손님일 것이리라. 그러나 손님보다도 궁금한 건 기차였다.

8월의 북경은 더웠다. 거기에 지독한 스모그까지 합세해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든 곳이었다. 안정대로 큰길가에 있는 북경여행사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시원한 냉방이 반가웠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던 뚱뚱한 몸집의 왕사장이 나를 반긴다.

“니하오. 대진, 기차표 구하기가 보통 힘들었던 게 아냐.”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했어요?”

“평소 잘 알고 있는 높은 사람 신세 좀 졌지. 아마 한국인으로서 이 기차를 타는 건 대진이 처음일거야.”

뚱뚱한 몸을 흔들며 왕사장은 기차표를 확보한 이야기를 꺼내 놓았다.

“중국에선 관시…… 대진, 한국말로로는 그걸 뭐라고 하지?”

“관계라고 번역 되지만 그 보다는 유대 관계 쪽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네요.”

신흥 개발도상국 대열에 들어선 중국은 부정부패가 심각했다. 그 건 이 나라의 오랜 관습이었는데, 모든 거래에 있어 관시를 아직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의 폐해는 많았으나 그걸 무시하고는, 규모가 커던 작던 중국서 사업하기는 어려웠다. 그런 면에서 왕사장은 능력 있는 사업가였다.

“여행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열흘간이야. 출발은 이틀 후 북경 서역이고, 한국에 있는 여행사에서 우리에게 보내준 손님은 모두 세 명이고.”

열흘간의 여행이라면 대학원 개강 일자에는 문제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공항으로 픽업을 가야겠지요?”

“그렇지. 이틀 후 저녁 2시 30분에 아시아나 항공 편으로 북경 공항에 도착한다는군. 잘 잤다 오라고. 대진도 기차를 타고 티베트를 가는 건 처음이잖아. 중국 사람들이라면 내가 직접 갔을 텐데.”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는 듯 왕사장은 눈을 찡긐 거리며 나에게 서류를 건네주었다. 손님 신상 명세와 기차표, 그리고 티베트 라싸에 있는 호텔 예약 표였다. 그중에는 ‘입경허가서’라는 것도 있었다. 티베트 자치구는, 신강위구르와 함께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운동 기운이 있는 곳이라, 외국인들에게는 이 서류가 필요했다. 유학생이지만 한국인이므로 당연히 내 이름도 그 명단에 있었다. 이 서류 때문에 왕사장은 티베트 여행객들에게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기차만 처음이지 티베트는 몇 번 가보았으니까 문제없을 거야.”

“한국에서 오는 손님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그건 모르지. 그 사람들 입경허가서 때문에 여권 복사본만 팩스로 받았으니까. 전부 남자라는 것만 알고 있어. 잘 갔다 오라고.”

북경여행사를 나서며 나는, 역사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길(路)도 진화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까마득한 변방의 티베트에 기차 길이 열렸다니. 숙소로 돌아와 티베트에 대하여 자료를 찾아 놓았다. 전공이 중어 중문학이니 ‘시짱자치구’라 불리는 그곳의 인문적 상식은 대충 있었다. 산소가 희박한 만큼, 인구 밀도도 희박한 그곳에 철길을 놓은 중국의 속내야 이미 세계가 다 알고 있다. 티베트를 병합한 중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뜻에 따라 만들어 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래도 그렇지 평균 해발 4500미터가 넘는, 그 티베트 고원을 수 천 톤의 기차가 올라간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티베트가 어떤 곳인가. 높기도 하거니와 쿤륄산맥, 탕그라 산맥, 히말라야로 에워 쌓인 불모의 땅이다. 하다 못해 헬리콥터 조종 교본에도, 비상시 아니면 절대로 체류하지 말라고 했을 정도로 아득한 높이의 땅덩어리 아닌가.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지도상 공백으로 남아 있던 곳. 고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동토 층인데, 그곳을 기차가 올라간다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내가 여행 준비를 끝낸 가방을 끌며, 북경 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두 시였다. 북경의 끔찍한 교통지옥 때문에 서둘렀는데도, 손님 비행기 도착 시간을 겨우 맞춰 도착한 것이다. 비행기가 쏟아 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출구 앞에 선 나는, 북경여행사로고가 박힌 종이를 꺼 들었다. ‘홍인수, 이성열, 김석우님 환영합니다.’라고 써진 글이었다.

나에게는 매번 이럴 때가 긴장되는 순간이다. 미리 보았던 그들의 여권 사본에서 홍인수가 나이가 제일 많은 마흔 두 살이었고, 이성열

이 서른다섯 살, 김석우가 서른 두 살이었다. 그 외에 그들의 직업이라든가 성격 등 다른 정보를 알 길이 없었다. 그들 모두가 일행인지, 아니면 한국 여행사에서 개별적으로 접수한 사람들인지도 나는 몰랐다. 그러므로 손님을 처음 대면하는 지금 내가 긴장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리고 여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티베트가 쉽지 않은 여행지라는 걸 반증하는 건지도 모른다. 열악한 숙소, 끔찍이 더러운 화장실, 기압 차이에 다른 두통을 생각할 때 티베트는 관광지로서 어울리는 곳은 아니었다. 여행이라면 좋은 곳도 많은데 하필 그런 곳을 가려는 이들은 뭐를 하는 사람들일까.

또 다른 비행기가 도착했는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들고 있는 환영 문구를 보고 누군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조금 살이 찐 몸집에 고어텍스 등산복 상의를 입은 중년 남자였다. 그리고 뒤쪽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두 사람에게 나를 가리켰다.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해 오는 그들의 첫 인상은 좋았다.

“여러분의 티베트 여행 통역과 안내를 맡을 고대진입니다. 북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구먼. 대진씨라고 하셨나? 인상이 좋군. 나 홍인수라라고 해요.”

홍인수는 첫 대화부터, 경어도 그렇다고 반말도 아닌 말로 내게 인사를 해왔다. 그렇다고 기분이 나쁜 건 아니었다. 성격이 시원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뒤 끝이 없다는 걸 나는 안다. 홍인수는 기분 좋은 웃음으로 곁의 일행을 소개했다. 이성열이라는 사람은 마른 체격에 키가 크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는 상의는 물론, 바지와 어깨에 맨 가방까지 검은 색 일색이었다. 김석우라고 소개 받은 사람은 작은 키에 좀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몸매를 하고 있었다. 그 역시 커다란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었다.

“기차 출발은 저녁 9시 30분입니다. 그동안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금성을 대충 도는 관광 정도는 충분한 시간인데요.”

“비행기에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 관광에는 흥미가 없다는군.”

비행기에서 말을 나누었다는 홍인수의 말은, 이들이 일행이 아님을 뜻했다.

“일행이 아니신가보죠?”

“우리는 인천 공항에서 처음 만났지. 한 명씩 따로 따로 온 거요. 특히 이성열 씨는 미국에서 온 교포더군. 그러나 이제 열흘 동안 우리는 한 팀이 되는 거요.”

그 말에 이성열을 바라보니 그는 긍정의 표시인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기차 시간까지 어떻게 보내는 게 좋겠습니까?”

“출발지 북경 서역 근처로 이동해서 어디 괜찮은 식당으로 갑시다. 저녁과 함께 술 한 잔 하면서 단합 대회를 하지요. 어떻습니까?”

홍인수는 나머지 두 사람에게 동의를 구했다. 이럴 때 나는 고마움을 느낀다. 내가 나서서 이리저리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일행 중 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 주면 일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그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먼 길 출발을 앞두고 단합자리도 괜찮은 일이지요.”

김석우가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잠깐만요. 대진씨. 옹화궁(雍和宮)이 이곳에서 먼가요? 가능하다면 나는 그곳에 들렀다 기차역에서 만났으면 싶은데.”

이성열이었었는데 특이한 부탁이었다.

“티베트 라마 불교 사원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대진씨가 택시를 태워주면 그곳에 갔다가 시간 맞춰 역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그건 좀 힘들어요. 북경시 동북쪽에 있는데 아마 그곳에 도착하면 문을 닫을 시간이 될 겁니다. 북경은 서울보다 더 교통 체증이 심해요. 아침 미국에서 오셨다고 했지요?”

이성열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스쳤다. 일반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는 라마 사원을 간다는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시간이 맞지도 않지만 중국말을 못하는 그를 혼자 보내는 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꼭 그곳을 가야 합니까?”

이성열과 나누는 대화를 듣던 홍인수가 나섰다.

“아니…… 꼭 가야 할 이유는 없어요. 티베트 가는 기차 시간이 남는다가에 그런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그럼 내 말대로 식당으로 갑시다. 첫 날부터 이산가족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러지요. 뭐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공항 택시 정류장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려면 한참 걸려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잠시 공항으로 되돌아 갔다 온 홍인수가 웬 사내를 한명 데리고 돌아왔다. 자가용 택시영업을 하는 소위 조선족 빼끼였다.

“이 사람 차를 타고 갑시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게 빠를 것 같아요.”

내가 무색해하는 표정을 지었는지, 홍인수는 사람 좋은 웃음을 띠며 말했다.

“대진군, 가이드 역할에 월권을 한 게 아니요. 아까 나올 때 이 사람이 계속 따라 붙었어요. 하하.”

빼끼를 따라 주차장으로 간 우리는 짐을 차 트렁크에 실었다. 내가

이성열이 든 검은 가방을 받아 실으려 했을 때 그는 손사래를 쳤다. 카메라 가방인 듯 싶었는데 차 안에서도 이성열은 그 가방을 꼭 잡고 있었다.

“중국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군. 오히려 서울보다 더 커진 것 같아. 빌딩도 다 새것이고. 북경 인구가 얼마나 되지?”

달리는 차 안에서 홍인수가 물었다.

“대략 천오백만 쯤 됩니다. 그건 북경 거주 증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 밖에 체류하거나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합치면 이천만이 넘는다는 말도 있어요.”

“북경에 살려면 거주 증명이 있어야 하나? 같은 중국인인데.”

내 말이 의외라는 듯 홍인수가 물었다. 김석우가 나대신 나서서 설명을 한다.

“일종의 교육지책이지요. 만약 아무나 북경에 살게 한다면, 한 일 억쯤 금방 몰려 들 거예요. 인프라나 사회적 혼란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것 참, 별난 일도 다 있군.”

창 밖으로 눈을 돌리며 홍인수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다. 김석우는 중국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듯 보였다. 차는 교통 혼잡으로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서역 근처 대동호텔에 도착했다. 특급호텔답게 냉방이 잘 되어 아주 시원했다. 식당을 찾아 자리를 잡은 우리는 음식과 찬 맥주를 시켰다.

“팔 월의 북경은 참 덥군. 그런데 대진군은 군대 갔다 왔나?”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홍인수가 질문을 해왔다.

“그럼요. 육군으로 군을 마쳤습니다.”

“유학생인가?”

“네. 한국에서 중문학 전공 졸업 후, 이곳 청화대학에서 석사과정

중입니다.”

“일류대학이네. 북경대학과 쌍벽을 이루는 대학이라면서? 그럼 가이드 일은 아르바이트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일하고 있죠.”

“관광 가이드라, 아주 좋은 아르바이트구만. 우리는 돈 내고 오는데 대진군은 관광 공짜로 하고 거기에 돈까지 버니 말이야.”

홍인수의 거드는 말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였다. 당연히 매번 하던 모범 답이 나왔다.

“가이드 참 힘든 직종입니다. 이거 아르바이트라 하는 거지 직업으로 생각했다면 당장 그만 둘 겁니다.”

“어쩌서? 관광지 자료만 챙기고 중국말 통역만 하면 되는 건데?”

“관광지 정보는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 사정도 꿰고 있어야죠. 주변 국가와 관계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인터넷 뒤져 나오는 정보 가지고는 손님에게 감동을 줄 수 없어요.”

“하—감동까지나. 이거 우리 가이드 잘 만난 것 같구먼.”

“그리고 손님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아이, 어른, 남자, 여자. 그중엔 저를 하인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행가이드는 참 힘든 직종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손님들에게 미리 해주는 일종의 경고 같은 것이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쉽게 돈 버는 게 세상엔 아무 것도 없지요.”

자스민 차를 마시던 김석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중국 음식의 푸짐함에 이들은 익숙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성열은 채식주의자처럼 자신의 접시에 야채만 골라 담았다.

“자—장도를 위하여 한 잔 합시다.”

가득 찬 맥주잔을 들고 홍인수가 기분 좋게 말했다. 우리는 그가 든 맥주잔을 부딪치며 건배를 했다.

“이제 함께 열흘을 보내야 할 텐데 서로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나는 한국에서 작은 무역 관련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홍인수라 합니다. 사업을 위해 티베트를 가는 겁니다. 티베트 특산물 카펫이 주 품목인데 비행기로 실어 나르려니까 채산이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타려는 기차로 말미암아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줄 것이니까. 그걸 알고 싶어 왔어요.”

어쩐지 시원스럽고 손이 크다 생각했는데 무역업체의 사장이었다. 그것보다 내가 놀란 것은, 개통 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는 기차를 놓고 벌써 손익 계산을 하는 점이었다. 흥 사장을 이어 김석우가 일어섰다.

“저는 H신문사 근무하는 김석우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통된 칭짱 열차에 대하여 취재차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취재하는 기사는 사진과 함께 우리 신문에 연재할 계획입니다.”

눈매가 날카로워 보인다 싶었는데 역시 김석우의 직업은 기자였다.

“저는 이성열이라고 합니다. 거주하는 곳은 미국 로스앤젤리스입니다. 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힘들게 휴가를 얻어 이곳에 왔습니다. 꼭 티베트를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천천히 나누도록 하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머뭇거리며 말을 마친 이성열의 눈빛에 잠시 쓸쓸함이 흐르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미국에서 온 사람이 북경에 있는 티베트 불교 사원인 옹화궁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곳은 일반인이 잘 찾지 않는 곳인데 그곳을 가고 싶어 한 이유는 뭘까.

김 기자가 나에게 질문을 해왔다.

“대진씨, 우리가 이번 여행에서 주의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

려 주세요.”

“우선 고소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차가 오천 미터를 넘어 가니까요. 제가 몇 가지 약은 준비해 왔어요. 천천히 움직이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독립 운동이 벌어지는 민감한 곳이니까, 김 기자님은 가능한 조심스럽게 취재하는 게 좋겠는데요. 게엄령 중인 그곳은 기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김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표시였다. 맞은편에 앉은 이성열이 시선을 내게 고정시키며 물어왔다.

“대진씨, 하늘 호수는 언제 가게 되지요?”

“아, 예. 계획서에 나온 하늘 호수 말씀이군요. 그 호수는 원래 ‘남쵸’라고 합니다. 티베트어로 ‘남’은 하늘을, ‘쵸’는 호수를 말하죠.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늘 호수라는 별명을 얻은 거예요, 해발이 사천 칠백 미터가 넘기에 곧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라싸에서 관광을 하며 고소에 적응 된 후 그곳을 가게 됩니다.”

이성열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에 대하여 흥미를 느꼈다. 티베트가 흥미로운 여행지임엔 틀림없으나, 태평양을 건너고 다시 서해를 건너 올 만큼 그리 매력적인 여행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차차 그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은 내 입을 거쳐 통역이 될 것이므로. 자신의 맥주 컵을 단숨에 비운 홍 사장이 내게 잔을 권했다.

“예전엔 티베트를 가려면 비행기 뿐이었는데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갈 줄 꿈에라도 알았을까. 참 세상 좋아 졌어.”

“그럼요. 좋아지고말고요. 실크로드가 옛날 옛적 이름이라면, 이제 철길이 깔렸으니 우리가 가는 길은 스틸로드라고 불러야겠지요. 그래서 제 글 제목도 ‘스틸로드 따라 티베트를 가다’라고 뽑을 예정입니다.”

김 기자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다. 내가 챙겨 본 자료도 그렇게

밝히고 있었다. 티베트 고원도 광의의 실크로드 중 하나였다. 우리가 익히 알던, 우루무치를 통해 서역으로 가는 실크로드가 아니라, 티베트를 종단하여 중국과 인도를 오가던 길이 존재했다. 해초 스님 이전에도 네 명의 신라스님이 우리가 갈 고원을 경유하여 인도로 성지순례를 떠났다. 티베트와 인도 사이, 히말라야 고개 ‘나투라’가 그 고개 길이다. 아득한 옛날, 목숨을 담보한 채 몇 년을 터벅터벅 걸었을 실크로드를 우리는 기차 타고 가려고 모인 것이다.

“여러분이 북경여행사를 선택하신 건 잘한 일입니다. 그 기차표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으니까요.”

“알아. 한국에서 이곳저곳 문의를 해도 기차표 때문에 아예 안 된다더군. 인연이 되려니 이렇게 당신도 만났고 기차도 타게 된 셈이지. 안 그래요?”

홍 사장은 주변의 동의를 구한다는 듯 좌중을 휘 둘러 보았다.

2006년 칠월에 개통 된 T27 북경—라싸 간 기차는, 하루 한 대 뿐이었다. 표는 연일 매진되어 도저히 구할 길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중국인들에게도 티베트는 미지의 세계였고, 중국은 후진따오 주석까지 나서서, 이 하늘 철도 건설을 칭송하고 있었다. 중국 언론들은 이 기차길에 티엔루(天路), 즉 하늘 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썩튼 천국이었던 중국 기술도 이제는 만만한 게 아니야. 대진군이 이곳에 사니까 잘 알겠네. 어떻게 생각해요?”

“사장님 산샤 댐 아시지요? 양자강을 막아 버린 엄청난 토목 공사. 무려 백 구십 만 명이나 이주시킨 세계 최대의 댐. 그것 완공과 선저우 유인우주선 발사, 그리고 이 하늘 철도 개통을 근대 중국의 3대 업적으로 당국은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 맞아, 예전의 중국이 아니지. 원자폭탄, 수소폭탄에 유인 우주선까지 자체 기술로 만드는 중국이니까.”

“이 기차 개통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니까 엄청나게 인파가 몰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여행 자제를 호소하는 방송이 자주 나와요. 웃기는 일이에요.”

사실이 그랬다. 중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인해전술 아닌가. 중국 당국의 대대적 개통 홍보로 인해 엄청난 사람들이 그것을 타려고 대기하고 있던 참이었다. 물리는 사람들을 포용할 인프라가 라싸에는 절대 부족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행사에서는 아예 손님을 받지 않는 사태를 야기했다. 당연히 라싸행 기차표는 귀하신 물건이 되었지만, 왕사장의 수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그런데 이성열씨가 가려던 그 뭐라던가, 옹화궁인가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문득 생각났다는 듯 홍 사장이 이성열에게 화제를 돌렸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저 라마 불교 사원이라는 것 밖예요.”

“그럼 가이드가 잘 알겠네. 거기가 어떤 곳이지?”

“청나라 때 강희 황제의 넷째 아들을 세종옹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살던 저택이었습니다. 세종옹정이 황제가 되어 즉위 한 이래 티베트 불교 사원으로 바뀐 거지요. 황제는 아주 독실한 라마 불교도였던 모양입니다.”

이럴 때는 기분이 좋았다. 내가 아는 질문이었으니까. 가이드 일을 하며 느낀 바로는 손님들의 질문에 즉답이 안 나오면 무능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절에서 볼 게 뭐야? 유명한 게 있다면.”

“만복각에 있는 부처님이지요.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7세가 건륭 황제에게 바친 것이라고 하는데 엄청 커요.”

그때 이성열이 내말을 자르며 끼어들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건 그 목불이 나닙니다. 그 절에 있는 약사전(藥

師殿)을 보고 싶었어요. 그곳에는 티베트 약초표본이 많이 있다더군요. 라마 스님들이 그곳에서 티베트 전통 의술을 공부했던 장소라고 해서 가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시간이 갈수록 이성열에게 궁금증이 일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북경 주변 관광지를 많이 다녀 보았으나 옹화궁을 가겠다는 사람은 드물었다. 높이 십팔 미터의 거대한 나무 불상에는 관심이 없고 약사전에 관심이 있다는 말도 생경했다.

기차 시간이 되어 우리는 일어섰다. 티베트 수도 라싸로 가는 칭짱 철도 출발지는 북경 서역이었다. 자금성 성문을 닮은 거대한 구조물이 인상적인 역전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역 구내에는 겁을 주듯 ‘티베트를 여행하려는 외국인은 입경허가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

나는 짐꾼을 동원해 다른 출구로 미리 기차에 탑승 할 수 있었다. 그런 것이 내가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배운 노하우였다. 중국에서도 가장 쾌적한 기차라는 소문대로, 왕사장이 사 놓은 4인용 침대칸은 깨끗했고 제복의 승무원들 역시 친절했다.

밤 9시 30분 정각, 라싸행 기차가 사람들을 꽉 채운 채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드디어 출발하는군. 아까 보니 식당 칸이 있던데 그리로 가서 한잔 더 합시다. 역사적 대장정을 나서는데, 또 초저녁인데 잠이 오겠어요?”

한 칸에 양쪽으로 2단 층으로 된, 각자의 침대에 짐을 정리한 후 홍 사장이 우리를 채근했다. 대동호텔의 저녁 값도 그가 냈듯이 또 한잔 사겠다는 말이었다.

“저는 좀 쉬는 게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끼리 갔다 오시

조.”

이성열은 예의 그 검은 가방을 맨 채 침대에 앉아 사양을 했다. 홍 사장의 말대로 잠 들 시간은 아니었기에 김 기자와 나는 그를 따라 식당 칸으로 갔다.

“대진군이 안주는 알아서 시키라고. 중국 물가가 썩 게 이럴 때는 고맙다니까.”

나는 고량주와 거기에 어울릴 몇 가지 요리를 시켰다.

“과연, 후년으로 다가온 북경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까요? 말은 안했지만 북경의 스모그는 정말 대단했어요. 이제 그 공해로부터 해방되어 청정 티베트로 간다니 기분 좋군요.”

김 기자의 말대로 첫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에 나도 가슴이 설레었다.

“대진군, 우리가 지금부터 몇 킬로미터를 달려가는 거요?”

홍 사장의 질문이었다.

“자료에는 4065km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 부산 열배니까 대단한 길이죠.”

“몇 시간이나 걸리지?”

“한국의 무궁화호 속도로 47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이걸 칭짱 철도로 부른다는데 맞나?”

“아닙니다. 칭짱 철도와 연결 될 뿐이지요. 기존 철도로 청해성의 거얼무에 도착하면, 거기부터 티베트 고원을 넘어 라싸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칭짱 철도입니다. 그게 이번에 개통된 겁니다.”

“그렇군. 그럼 높이는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이 기차로 말이지.”

홍 사장이 궁금한 것처럼 김 기자도 내 설명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세계 최고 높이를 달리는 기차는 당연히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역

인 탕그라 역을 지납니다. 그 역은 알프스 몽블랑보다도 높은, 해발 5072m나 됩니다.”

외워 놓은 설명을 하며 나는 다시 스스로 놀라고 있었다. 수 천 톤의 이 육중한 쇠붙이가, 알프스 산맥 보다 높은 곳을 오르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다.

“홍 사장님. 고도가 높아지면, 술을 많이 마시지 못 할 거예요. 지독한 두통에 시달릴 테니까요.”

“아직 이곳은 괜찮아. 평지인데 뭘. 그때는 조금만 마시지 뭐. 농담이겠지만 후진따오 주석 만나기보다 힘들다는 표를 구했으니 축배를 들 이유로는 좋잖아.”

홍 사장은 술을 꽤 좋아하는 모양이었다. 카펫까지 깔려 있는 식당은 꽤 품위가 있어 보였고, 그곳은 기차여행을 마치는 라싸까지 우리 단골 쉼터가 되었다.

“이 카펫은 싸구려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 낸 것이지. 내가 취급하는 티베트 카펫과는 품격이 달라. 모두 손으로 만든 수제품이니 까 당연히 값도 비싸고. 하하.”

전문가답게 홍 사장은 식당 바닥에 깔린 카펫 품평을 했다.

“이성열씨도 이리 같이 왔으면 좋았을걸. 술을 많이 못하나 보지?”

축배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선지, 홍 사장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김 기자가 받았다.

“무슨 걱정이 있는 사람 같아요. 미국에서 일부러 여행을 왔으면 다 툭 털어 버리고 즐겁게 어울리면 좋을 텐데.”

“지금이라도 불러 올까?”

“에이, 내버려 두세요. 피곤하다는데 쉬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홍 사장의 사업 이야기와 김 기자의 취재 계획 등, 여러 대화를 나

누다 침실로 돌아오니, 2층 침대의 이성열은 벌써 잠들었는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혼곤한 잠을 자고 일어 난 사이, 이미 기차는 낮 선 풍경 속을 달리고 있었다. 희뵤한 아침 여명이 밝아 오기 시작했다. 유학 오기 전 갔었던 전라도 김제 평야가 생각났다. 그곳에서만 지평선이 보이는 줄 알았는데 이곳 역시 그랬다. 창 밖으로 질펀한 옥수수 밭이 끝 간곳없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경작 가능한 땅이 많으므로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도 먹을거리는 넘쳐 날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경작 가능한 땅으로는 세계 최고 넓이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진시 황릉으로 유명한 실크로드의 출발점인 시안(西安)역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었다. 중간에 한번 정차 한 후 꼬박 12시간을 달려 온 셈이다. 이 기차는 라싸까지 통과하는 각 성의 성(省)도 6개 도시만 정차한다. 말 그대로 급행이라 할 수 있는데, 성 하나는 우리나라 몇 배의 크기와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기절하듯 폭 잠자고 아침에 깨어나면 힘이 솟는다. 그것처럼 중국도 질곡의 역사를 뒤로 하고 거듭 깨어났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아직 북경 도심지에서 인력거 끌며 휴대폰 거는 혼돈이지만 이제 누구도 중국의 힘과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세면을 마친 후 아침을 먹으러 다시 식당칸으로 모였다. 어제 저녁 매상을 올려준 덕분인지 종업원이 웃는 얼굴로 반긴다.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켰고 일행들은 그것들을 맛있게 먹는데, 이성열만은 청채라 불리는 야채와 밥만 먹는다. 역시 그는 채식주의자인 모양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커피를 시켜 놓고 환담을 나누었다. 침실로 돌아가 봤자 낮잠만 잘 터였으니까.

“마치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보는 것 같아. 이 넓은 땅을 먹어치운 후 기차 길을 깬 중국의 서북공정을 보면 말이지.”

창 밖으로 질펀하게 펼쳐진 평원을 보며 홍 사장이 부러운 듯 말했다. 맞은편에 앉아 차를 마시던 김 기자가 그 말에 동의라도 하듯 맞장구를 쳤다.

“정확히는 서남공정이예요. 물론 큰 뜻으로는 서북공정에 포함되지만요. 중국 땅이 넓다고 하지만 티베트 고원이 사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어요. 티베트는 독립 운운 하나 결코 중국은 티베트를 내 놓을 리가 없습니다. 하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어느 나라라도 땅 욕심에 그렇겠지요.”

“미국이 서부로 진출 할 때는 인디언들의 저항이 꽤 심했었는데, 이걸 솥에 거저 먹은 거지 원.”

“하하. 예전에 본 서부영화 생각이 나네요. 그 영화에서 명 사수 존 웨인이 포장마차를 이끌고 황량한 서부를 갑니다. 드디어 인디언과 전투가 붙지요. 전력의 열세로 존 웨인이 이끄는 백인들은 거의 전멸 직전에 이릅니다. 더 버틸 힘이 없는 상황에서 인디언들은 마지막 총 공격을 해 옵니다. 그때 뿔바라밤 하며 나타나는 기병대에게 우리가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왜곡이었지요. 인디언 땅에 쳐들어간 침략자에게 박수친 꼴입니다.”

“그게 역사야. 센 놈이 이기는. 중국 역시 서부개척 황금시대를 맞은 게 틀림없어. 아이고, 이성열 씨는 미국에서 왔는데 이거 공연히 문자 쓴 꼴이네.”

이성열은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그저 미소만 띄우고 있었다. 홍 사장은 계속 말을 이었다.

“건설도 좋지만, 중국 특유의 블랙홀 중화사상을 서쪽에 옮기는 사

업 이름이 바로 서북공정 아니야?”

나는 불현듯 지금 한국을 열 받게 하고 있는 ‘동북공정’이 떠올랐다. 동북공정은 그래서 심각하다. 내가 아는 중국은 결코 그 동북공정을 포기할 리 없다. 원, 청나라를 세운, 소수민족 역시 중화사상이라는 블랙홀에 녹아들어 중국에 동화 된 것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고구려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주장하는 동북공정은, 결코 쉽게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내가 유학을 하며 공부한 중국은, 서두르지 않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도 않는 나라였다. 이 철도가 그 증거 아니겠는가. 티베트인들조차도 독인지 약인지 헷갈리는 이 칭짱 철도 역시, 그 결과물 중 하나 일 것이다. 티베트의 독립 운동에 유혈 진압도 있었다. 독립을 위한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노력에 보내는, 세계의 동정 어린 시선도 있으나 중국의 귀에는 들릴 리 없다. 만만디 정신으로 꾸준하게 중국 서부개척 시대를 준비했고 이렇게 중화시키며 티베트를 열고 있다.

“이성열씨, 어제 대진군에게 하늘 호수를 언제 가냐고 묻던데, 그곳 구경하러 이번 여행을 온 거요?”

홍 사장이 내심 궁금했다는 듯 이성열에게 질문을 던졌다. 창 밖을 보며 조용히 차를 마시던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내 말은, 휴가를 내서 이 먼 길을 올 만큼 하늘 호수가 멋진 곳이야 그 말이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굳이 그곳을 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설련화(雪蓮花)때문입니다. 히말라야에서만 핀다는 그 꽃의 자생지가, 하늘 호수라고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호수도 아니고 꽃 때문에 이 길을 간다? 그거…… 진짚니까?”

이성열의 여행 목적이 하늘 호수도 아니고 꽃이라는 말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홍 사장이 놀랐다.

“그렇습니다. 티베트 불교 유적인 포탈라 궁과 조강 사원에도 관심이 있으나, 저는 그 꽃을 보러 가는 중입니다. 그 꽃은 찾는 게 제게는 제일 큰 이입니다.”

이성열의 말에 김 기자가 흥미를 보였다.

“그 설련화라는 게, 혹시 한국에서 복수초라고 불리는 것이 아닌가요? 그 꽃 뿌리는 한방과 민간에서 약재로 사용 한다던데.”

이성열은 즉각 고개를 저었는데 눈빛이 아련해 졌다.

“그 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한국같이 낮은 곳에 피는 꽃과, 내가 찾는 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어요?”

“자활본초강목(自活本草綱目)이란 책에서 우리는 처음 설련화를 봤지요. 만년설산에서만 자라는 꽃이더군요. 사람의 능력으로 재배가 안 되고 설산의 새들이 먹고 난 후 배설물에 의해 번식이 이루어진답니다.”

“미국에도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라고 했는데 그걸 본 사람이 또 있다는 말이네요?”

김 기자가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으로 이성열에게 물었다.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그 꽃이 가지고 있는, 불치병 치료에 대한 놀라운 효험을 믿지 않습니다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의외의 대답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감쌌다. 이성열은 그 설련화의 약재로서 효능을 믿는 게 틀림없었다. 그는 침울하게 말했는데 그 분위기로 봐서 그의 아내는 몹시 아프기라도 한 모양이었다. 나의 그런 짐작을 흥 사장도 같이 느낀 모양이었다.

“만병통치라…… 어떻게 생긴 꽃이요?”

“형태는 연꽃과 비슷하게 외줄기만 우뚝 선 모습이 매우 아름답더군요. 하늘 호수 가에 핀 것이 천하에서 으뜸가는 보약이랍니다. 열

이 많은 꽃이라 눈 속에서도 피고 있다더군요. 얼음이 얼어도 꽃 주변은 녹아 버리는 설련화지요. 로스앤젤리스에도 한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물어 보았는데, 더러 그 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다더군요.”

“정말 그것이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럼요. 우리는 그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집사람은 이미 병원에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시다. 수술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암세포가 너무 번져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도 손을 놓은 상황에서 저에게 믿을 것은 이제 그것뿐이었지요.”

나는 가슴이 찢어져왔다. 그 꽃이 그렇게 영험하든 아니던 간에 이성열이 그 꽃에 집착해야 할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다. 북경에서 처음 만났을 때 옹화궁 약사전을 가고 싶다고 말했던 게 새삼 생각났다. 그곳에 티베트 약초가 많다고 말한 것은, 그곳에서 설련화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일까. 현대의학의 집합체 병원을 전전하며, 아내를 포기하라는 결론을 얻은 이성열이 할 일이 또 있었을까. 죽어 가는 아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남편의 심정이 오죽할까. 태평양을 건너 올 이유로는 충분했다. 조용한 성격의 이성열이 꽃 이야기에 열을 내는 그 절박한 심정을 나는 알 것 같았다.

“부인은 지금 미국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까?”

홍 사장이 측은한 표정으로, 다시 창 밖을 바라보고 있는 이성열에게 물었다.

“아내는…… 병원에 없습니다.”

창에서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이성열이 대답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싫었는지 갑자기 이성열이 일어서며 입을 떼었다.

“궁연히 저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불편해 지니까요. 또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가 가고 나서도 한참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다. 창 밖으로는 여전히 끝없는 구름과 옥수수 밭이 연속으로 이어졌다. 침묵을 깨며 홍 사장이 입을 열었다.

“참 안되었네. 이성열씨 나이를 보면 그의 부인도 아직 젊은 사람인데 폐암 말기라니. 병원에도 없다니 거기다 손 든 모양이지. 그런데 대진군, 하늘 호수에 그런 꽃이 정말 있기는 한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 보는 말이라서요.”

사진기를 점검하던 김 기자가 홍 사장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흔든다.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있다면 벌써 난리가 났지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세상에 그런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나도 그의 말이 맞는다 싶었다. 티베트에도 의술은 있었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우리나라와 중국과는 다르지만 그들 나름의 의학적인 약품과 치료는 존재했다. 그들의 약품은 거의 자연에서 채취한 약초들이었다. 티베트 전문 중국여행사에서, 신비의 땅 티베트의 약을 만병통치나 되는 것처럼 팔아먹는 모습도 여러 번 봤다. 티베트의 신비가 주는 선입견에 그런지 몰라도, 검증도 없이 그걸 마구 사는 한국인들을 보며 나는 속으로 웃은 적도 많았다. 그러나 설련화라는 것은 처음 들어 보는 약초였다. 홍 사장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다.

“아마 이성열씨는 어느 허무맹랑한 의서를 보고 그 말을 믿는 모양이지. 한국 종합병원에 가면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말기 환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가짜 특효약을 파는 놈들이. 부인이 죽어 가는데 그거라도 믿고 싶었던 게지.”

쓴 입맛을 다시며 홍 사장은 내 뺨뚱 한마디 더 붙였다.

“아무리 가망 없어도 죽어도 병원에서 죽어야지, 퇴원을 하면 어떻

게 해.”

“말기 암 환자지만 치료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특히 미국에서 말이죠.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요. 안된 일이네요, 그러니 이성열씨가 설련화 같은 황당한 이야기에 빠진 거겠지요. 잠깐, 대진씨 통역 좀 부탁드립니다.”

김 기자가, 우리 건너편 식탁에 앉아 있는 아가씨를 턱으로 가리키며 나에게 부탁을 해왔다. 그녀와 대화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말을 시켜 보니 북경에 있는 서북대학교 학생이었다.

“이 철도가 개통 된 후 뭐가 달라졌나요?”

“우리 학교 동기 중 한명이 라싸가 집인 사람이 있는데요, 일 년에 집을 한번 가기도 힘들었어요. 같은 중국인데도 말이죠.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는 거죠.”

스스럼없이 티베트를 ‘같은 중국’으로 호칭하는 그녀의 말이 내겐 다소 생경했지만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 국가의식은 이 기차길로 해서 더욱 심화될 것은 분명했다. 중국이 희박한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는 티베트에 철도를 건설한 백 가지 이유 중 또 하나가 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거얼무까지요.”

그곳은 티베트 고원 들머리였다. 거기서 기차는 탕구라 산맥을 넘는다. 공사구간 80퍼센트 이상 차지하는 960km가 평균 해발 4500m이다. 그 중 서울 부산 보다 긴 오백 킬로 이상이 영구 동토지역이라면 공사의 어려움에 수궁이 간다. 한마디로 얼음산에 놓인 철도라는 말이다.

“저분은 기자인데 사진을 한 장 찍자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좋아요.”

김 기자는 요란스러울 만큼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끝없는 녹색 평원을 달려 란저우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쯤이었다. 그 사이 풍경은 또 바뀌었다. 이제부터 녹색이 드물어졌고 황토 산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거대한 황하(黃河) 상류가 보였다. 우리가 종단하려는 티베트 고원을 에두른 탕구라 산맥에서 황하는 발원한다. 이 강은 이름 그대로 시작부터 탁한 황토 빛 흐름이었다. 비행기를 타고 갔다면 못 볼 진기한 풍경이었다.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도 인종이 많이 바뀌었다. 붉은 가사를 입은 티베트 승려와 머리를 땀은 티베트인들. 한 바퀴 돌리면 불경을 한번 읽는 것과 같다는 ‘마니차’를 돌리는 할머니를 보니 티베트가 가까워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 얼굴 모습이, 햇볕에 그을린 우리나라 시골 사람들 표정과 꼭 닮아 보였다. 중국 한족과는 분명히 다른 얼굴이었다.

란저우에서 시닝까지는 불과 3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미 고도가 높아져 시닝은 해발 2000미터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부터 서서히 고도가 높아지므로 시닝을 실제적으로 티베트 고원의 출발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곳이 예전 티베트의 관문 역할을 한 곳이다. 지금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청해 성에 속하지만, 티베트 불교에서 그 위치가 혁혁한 총카파가 이곳에서 태어났다. 티베트를 점령한 중국이 행정 개편을 단행하여 티베트 고원을 분할했다. 일부를 청해 성으로, 또 사천 성으로 편입시켰지만, 그래도 남은 티베트는 남한의 열두 배 크기였다. 시간은 오후 7시를 가리키고 있지만 아직 햇볕이 쨍쨍하다. 경도상으로 볼 때 북경과는 대략 두 시간 이상 차이가 나야 함에도, 북경 표준시를 전국에 적용시키기 때문이다. 이미 북경은 해거름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으므로 침대칸으로 가, 자고 있는 이성열을 깨

워왔다. 그는 식당 칸으로 오면서도 검은 가방을 챙겼다. 그건 카메라 가방은 아닌 듯 했다. 나는 한 번도 그가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한 잔 하자고. 내일부터 고도를 올리면 술을 못 먹을 테니까.”

술을 좋아하는 흥 사장의 부탁으로 나는 여러 안주를 시켰다. 이성 열은 고기는 먹지 않는 대신 술은 사양하지 않았다.

“저기 황하 강 좀 봐. 제법 기세 좋게 흐르는데 왜 마른 강이라는 거야?”

나는 그가 따라주는 맥주를 받으며 대답을 했다.

“여기는 공업단지가 없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 그렇지요. 강 따라 내려가다 보면 엄청 많은 공장과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물 때문입니다.”

“공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할 이런 뿌연 황토 물도 부족해, 하류로 내려 갈수록 마른 강이 된다는 거군. 이런 강이 인류 문명 발상지 중 하나라는 황하문명이라니 이해가 안 되네.”

그 말을 받아 김 기자가 나섰다.

“우리가 가려 하는 티베트에는 만년설 풍부한 물이 녹아 흐르는, 알룽창포 강이 있는데요 중국은 거기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그 물을 건천이 되어 가는 황하로 돌린다는 장수북조(藏水北調) 공정이 그것입니다.”

나도 처음 듣는 소리였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칭짱 철도에 이어 또다시 엄청난 규모의 자연 개조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의아해하는 나를 의식했던지 김 기자는 말을 이었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이 방안이 공식 의제로 채택되기도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짱(西藏)의 물이 중국을 구한다’는 책은 후진타오나 원자바오 총리가

당국자들에게 필독서로 권장할 정도라는군요.”

놀라운 일이었다. 알룽창포 강은 나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강이었다. 티베트에서 발원, 히말라야산맥을 감싸고 돈 후 방글라데시를 거쳐 갠지스 강과 합쳐 인도양으로 흘러나가는 아주 큰 강이다. 방글라데시에선 브라마푸트라 강으로 불린다고 들었다. 만약 이 공사가 시작 된다면 유사 이래 최고의 토목 공사가 될 것이다. 우리가 탄 청짱 철도 역시 그 공사에 큰 일꾼 역할을 할 것이다. 일종의 시너지 효과인 셈이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술잔을 기우리던 이성열이 뜻밖의 말을 한다.

“다, 제행무상이지요. 모든 건 변한다는. 사람이 이룬 것은 없어지게 마련이고, 사람이 쌓은 것은 무너지는 거지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 같아요.”

“야, 그거 좋은 말이네. 이성열 씨는 행동이나 말투가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 같아. 기독교 나라에서 온 사람답지 않게. 혹시 그쪽 공부를 한 사람입니까?”

술좌석에 함께 해 준 게 기쁘다는 듯 홍 사장이 너스레를 떨었다.

“아뇨. 그저 아내에게 귀 동냥으로 들은 말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몸살을 앓는 지구의 병은 깊습니다. 그건 문명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결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인간만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온갖 것을 만들어 내고 있죠. 원자탄이 그렇고 플라스틱이 그런 거죠.”

김 기자가 그 말에 적극 동의한다는 듯 거들고 나섰다.

“자연을 무시한 결과는 언제나 치명적 재해로 다가 섰다는 역사의 교훈에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땀이, 이 철도가 영원하리라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탐욕일 뿐이지요.”

이성열은 흡사 도사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내게는 그게 웬지 듣기 좋았다.

“그런데 이성열씨는 비행기로 라싸를 가면 빠를 텐데 왜 힘든 기차를 탔습니까? 그럴 이유라도 있나요?”

“경제적으로 싸게 치니까요. 그러나 그보다는 티베트 불교 공부를 하는 아내에게 이 고원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성열의 말은, 나중에 미국으로 귀환하면 아내에게 자신이 본 고원의 풍경을 설명하려는 말 같이 들렸다. 그 말을 이해한다는 듯 홍 사장이 농담을 했다.

“설명하기 간단해서 좋군. 이곳은 나무도 없고 풍경이 단조로우니까. 하하.”

“제가 사는 엘에이 근처에도 모하비 사막이라는 광활한 지평선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높은 고지는 아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그 사막과 다른 점은 이곳은 불경이 전해진 불법의 길이라는 겁니다.”

“스님들의 이곳을 횡단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을 거야. 그런데 이젠 철도가 생겼으니 과연 기지개를 편 중국은 무섭군. 누구도 중국을 다시 잠들지 못하게 할 것이야. 알프스보다 높은 곳에 철길을 놓고 강물을 돌리고, 무섭다 무서워.”

그런 농담 섞인 우려를 하는 홍 사장에게 김 기자가 한마디로 정의한다.

“중국은 미쳤어요!”

마침내, 거열무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6시 10분 이었다. 침대칸에서 2박 동안, 나와 친해진 승무원이 여기서 고원 기관차와 바뀐다고 귀뜸을 한다. 그 말을 전하니 김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기차 앞으로 달렸다. 여태 우리를 끌고 대륙을 횡단한 기관차가 분리 되고, 하얀

색의 고소 기관차 3량으로 바뀐다. 희박한 산소 속을 달리게 설계된 미국제라 했다. 그 말을 증명하듯 기관실엔 중국인과 함께 엔지니어처럼 보이는 백인이 타고 있다. 중국 대륙 3000여km를 끌고 온 저소 기관차는 이곳에서 아웃 되었다. 야구에서 9회 말 나타난 구원투수처럼 나머지 구절양장 힘겨운 칭짱 철도 1142km를 끌고 갈 구원투수 기관차였다.

지금부터 진정한 하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칭짱철도는 세계 철도사의 기적’이라고 했던 후진파오 말대로, 이제부터 그 현장을 눈으로 목격한다는 말일 터였다. 기차로 급격하게 고도를 높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영동선, 심포리역의 스위치백을 생각했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후진하며 한 계단 오르는, 그런 오름을 계속 반복하며 티베트 고원을 오르는 건 아닐까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건 역시 작은 나라에서 온 나그네의 상상이었다. 3량의 고소 기관차로 바뀌단 우리 기차는, 직선으로 티베트 고원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새벽에 사진을 찍는다고 설치는 바람에 잠이 달아 난 우리는, 일찍부터 식당 칸으로 갔다. 아직 창 밖은 어두워 사물을 분간 할 수는 없었으나 세계의 지붕을 관통하는 풍경을 놓칠 수는 없었다. 김 기자는 노트를 꺼내 무엇인가 적고 있고, 식당은 아침 준비로 부산했다. 그때 중국어와 티베트어, 그리고 영어로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산소를 공급한다는 말이었다. 천장의 에어컨에서 슈—소리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가 나오기 시작했다. 의자 밑에도 노즐 구멍이 있어 그곳에서도 산소가 나온다. 그럼에도 고소증을 견디지 못 하는 사람을 위해 승무원은 고무 튜브로 된 산소 호흡기를 나누어 주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처럼 의자 아래, 혹은 곁에 있는 산소 구멍에 그 튜브를 꼽고 콧구멍에 대는 것이다.

아침커피를 마시던 김 기자가 갑자기 생각 난 듯 말했다.

“중국말 중에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게 있어요.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말이지요.”

“그게 무슨 말이요?”

홍 사장이 뜬금없는 그 말이 의아한 듯 물었다.

“이 산맥을 처음 넘은 사람은 고선지 장군입니다. 고구려 유민이었지요. 당나라 때 티베트는 토번이라는 강력한 제국이 존재했습니다. 당 나라와 힘을 겨룰 정도였으니까요. 안서도호부의 책임자로 임명된 고선지 장군은 당나라의 최대 골칫거리였던 토번을 제압합니다. 그러나 안녹산의 난 때 참형을 당하지요.”

“그게 이이제이와 무슨 관계가 있지요?”

“오만한 중국은 자신들 말고는 모두 오랑캐로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들 눈에는 마찬가지였지요. 중국 동쪽에 있는, 오랑캐 이(夷)자를 써서 동이(東夷)족이라 불렀으니까요. 동북 변방의 고구려 고선지를 서북 변방의 토번과 싸움 시키고, 이용해 먹다 참형시켜 버린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역사는 잘 모르지만 참 허망한 일들이야. 그게 이 철도와 무슨 연관이 있나?”

“이 정도 고소라면 처음 오르는 인간에겐 산소가 필요합니다. 기차에서 산소를 품어 내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철도 작업을 하는 사람은 고소적응이 필요 없는 티베트 현지인이거나, 산소마스크가 필요한 중국인이겠지요.”

“산소마스크를 쓰고 무슨 노동을 해.”

“그렇지요.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든 중국인으론 안 되니, 고산족 티베트인들을 동원해 하늘 철도를 놓은 거지요. 그 철도가 자신의 나라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 채, 티베트인들은 건설에 동원된 게 아니었을까요?”

나는 그 말이 어찌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어붙은 영구 동토 칭짱 고원을 횡단한다는 철도공사는, 금세기에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는 프로젝트라는 비판을 받았다. 알프스 터널을 완성한 스위스의 터널 건설 전문가조차 동토 때문에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 동토층을 육중한 기차가 달리면 땅이 녹아들고 그럴 경우 철로가 휘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거라고 주장했다. 그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반 시설에 파일을 박거나 통풍용 관로를 묻어 철길을 만들었다고 했다. 중국으로서는 첨단 건설기법을 사용한 셈인데 칭짱 철도엔 교량이 눈에 많이 띄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겠다.

우리 칸의 남자 승무원 한 명이 아침을 먹으러 식당 칸으로 건너왔다. 김 기자의 통역을 맡아 대화를 나눴다.

“야크가 뛰어 든다던가 고소증에 사람이 상한 일은 없는가?”

“동물과 충돌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것들이 철로에 못 들어오게 펜스를 쳐 놓았기 때문이다. 고소증에 사람이 죽은 일은 없다. 다만, 피를 토하는 사람은 몇 명 봤다.”

그 말은 틀렸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 내가 챙긴 자료에 의하면 철도가 개통한 한 달 사이에, 이 기차에서 고소증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9명이라고 했다. 그래서 은근히 고소증에 대한 두려움이 술 좋아하는 흥 사장 주의를 환기 시킨 것이다.

“환경은 많이 파괴 되었을 텐데?”

“우리 중국은 칭짱 철도 운행에 따른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 보호 구역을 많이 지정하였고, 인공 구조물을 최소화했다. 동물 보호를 위해 철길 양쪽에 방책막도 만들었고.”

“성공적이었나?”

“그렇다. 세계 최고 높이의 철도기 때문에 사례가 없어 많은 고생을 했다. 생태계 파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고, 정부는 청장철도 주변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 이는 여태까지 제일 큰돈을 드린 셈이다. 열차에서 사용한 물은 모두 정화처리 후 방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럴 것이다. 그만큼 중국 당국도 원시의 이 고원을 보호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만이다. 어제 이성열의 말대로 언제나 자연의 적은 인간 뿐이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며 상대적으로 고도는 자꾸 높아 갔고 날이 밝기 시작했다. 거얼무에서 라싸까지 기차는 낮 시간만 운행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다. 아마 불안한 지반이 안정적 일 때 통과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여정 14시간은 낮 시간이고 질리도록 티베트 고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저기 좀 봐요. 야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 일행의 눈이 몰렸다.

“저게 야크야? 고산에서만 사는 소란 말이지?”

김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 대며 신기한 듯 말했다. 날이 밝아 오고 드디어 고산의 상징인 야크가 보이기 시작한 걸 보면 제법 높이 올라온 것 같았다. 끝 간데없는 구릉과, 우기 철이 끝나가므로 파릇하게 살아 난 초원의 세계였다. 가뭇하게 보이는 쿤룬 산맥의 만년설과 호수, 그리고 파릇한 초원과 투명한 하늘의 대비는 정말 환상적인 풍경이었다. 기차는 쿤룬산맥의 옆구리를 감거나 뚫고, 대형 파노라마 영상을 활동사진처럼 보이며 대평원을 내달렸다. 주인이 있는 것인지, 야생인지 모를 말무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다. 식당 칸의 양쪽 대형 유리창은 흡사 화면 같았다. 움직이는 커다란 스크린을 양 옆에 두고 우리는 아침 식사를 했다. 신기하지만 매혹적 풍경은, 여태까지

어두운 표정의 이성열 마음까지 들뜨게 만든 모양이었다.

“아까 김 기자가 말했지요? 유목민이었던 티베트인들이 만든 강력한 국가에 토번이 있었다고. 질펀하게 펼쳐지는 고원을 바람처럼 달리는 이 기차처럼, 티베트인들도 그렇게 달려 대 제국을 건설했지요. 세계를 정복한 몽골처럼, 티베트의 토번 제국은 저렇게 초원을 뛰노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것이 쑥스러웠던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나 다 허망한 일입니다. 몽골과 토번이 함께 믿던 국교가 티베트 불교예요. 라마 불교라고도 하지요. 스님을 티베트에서는 라마로 부르니까요. 티베트 불경에 어제 제가 드린 그런 말이 있어요. ‘쌓은 것은 무너지고 얻은 것은 잃는다.’ 그 말대로 몽골도, 티베트 민족의 강력한 토번국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역시 부처님 말씀은 시대를 넘어 언제나 옳습니다.”

불교 쪽 이야기는 모르지만, 말(馬) 이야기는 나도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석사 과정 중 한 과목으로 설정된 철학사에서 그것을 배웠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의 개념에서 유행한 그 단어, 노마디즘(Nomadism)이란 무엇인가. 유목적인 삶이다. 기존 가치와 삶의 방식을 맹종하는 게 아니라, 불모지를 이동해 다니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이론을 몰랐을 몽골이나 티베트인들의 삶을, 천년이나 지나 서구에서 재조명 한 것이라는 강의였다. 다른 철학적 고찰은 지나가더라도 티베트인들의 노마디즘은, 당시 대 성공을 거두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전쟁에서 유목민 특유의 ‘치고 빠지는 전술’이 먹혔던 것이고, 그 중심에 수족 같은 ‘말’이 있었다. 돌격 명령에 우르르 뛰는 사람과, 말은 애초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 사람들 밥 먹일 식량과 군수 물자 실어 나르던 병참 기지도, 수레도 필요 없는 속도전이 노마드적 새로운 전술이다. 그런 획기적 전술의

등장이 강력한 제국 건설을 만들었다. 바로 노마디즘의 승리였다. 그걸 현대에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교수는 적절한 비유를 들었다. 노트북과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서나 사업을 할 수 있는 현대 문명도, 결국 노마디즘의 연장선에 있다는 게, 지도 교수의 강의 내용이었다.

“야, 이거 티베트 고원에서 법문을 듣는 느낌이네. 이성열씨는 불교 공부를 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홍 사장이 눈을 크게 뜨고 이성열을 바라보았다.

“공부라니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 이야기지요.”

다시 말문을 닫은 이성열을 바라보며 나는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수목 한계선을 이미 넘어 선 까닭에, 창 밖으론 막막한 초원과 구름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불모의 땅에서 걷고, 수레 끌고, 어느 세월 에 전쟁 하러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속전속결의 비결은 말에 있었다는 교수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맞습니다. 다 부질없는 거지요. 토번이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까. 토번이 한창 번성하던 7세기경 당 태종은 양녀 문성(文成)공주를 티베트 왕 송첸감포에게 시집보냅니다. 티베트인들을 오랑캐로 폄하하던 콧대 높은 당나라가, 공주를 시집보낸 거지요.”

김 기자였다.

“정략결혼이었겠지. 꿈꿨던 속이 있는.”

“홍 사장님 말이 맞습니다. 당 나라 수도 장안까지, 티베트 토종 말 발굽이 휩쓸어 버린 결과였습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정략결혼이었죠. 토번과 화친하기 위한 결혼을 위해 문성공주는 울며, 고소증에 시달리며, 이 고원을 넘었지요.”

김 기자의 말도 내가 아는 내용이었다. 두 나라 사이의 갈등과 화친은 그 후 계속 되었는데, 그 흔적이 823년 만들어진 ‘당번회맹비’다. 이 비석은 지금도 라싸에 서있었고 나는 이들을 그리로 안내 할

참이었다. 그렇다고 말만 튼튼하고 그걸 수족처럼 움직이는 마술로 강한 군대가 되지는 않는다.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철기시대의 도래는 문명을 바꾸었다. 활과 창을 만들려면 철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티베트인들은 철광산을 고대로부터 개발해 냈고 그것으로 철기군 철마 병을 만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탄 이 청짱철도 역시 철의 산물이다. 형강으로 만든 철길, 철판으로 만든 기차, 후판으로 만든 철주와 팬스 등 말 그대로 철로 도배를 한 길이 아닌가.

나는 창 밖으로 펼쳐지고 있는 아득한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이 광활한 땅에는 무수히 많은 지하자원이 묻혀 있다고 했다. 무려 육십가지 이상의 광물이 생되고 있고 최근의 첨단 기술은, 대단위 원유와 우라늄까지 발견해 냈다. 그 지하자원의 운송을 위하여 서도 철길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저 고원을 말달렸던 그 야성과 기개는 어디로 가고, 지금은 중국에 편입되었을까.

국과산하재(國破山河在)라는 시귀도 떠올랐다. 당나라 시인 두보의 작품 중에 나오는 대목이다. 나라는 망하고 국민은 흩어졌으나, 오직 산과 강만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이다. 그 적절한 비유는 이 티베트 고원에도 적용 될 터였다. 지금 보고 있듯 창 밖의 초원과 하얀 산은 시공을 초월하여 그대로 남아 있다. 우주의 나이를 볼 때, 아니 축약하여 지구의 나이에 견주어 생각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그야말로 짧은 시간이다. 그 찰라 같은 시간들 속에 나라가 서고, 망하는 부침을 계속했다. 그러므로 이성열의 말대로, 쌓은 것은 무너지고 얻은 것은 잃는다, 라는 부처님 법문도 맞는다. 그렇게 역사를 반추하는 사이에도 기차는 기세 좋게 무인의 고원을 내 달린다. 내 상념을 알리가 없는 홍 사장이 흥미롭다는 듯 김 기자에게 묻는다.

“그렇게 강력했던 토번은 언제 망했어?”

“원나라에게 복속 되었습니다. 당나라가 망하고 5대 10국으로 분

열 되었을 때 징기스칸이 그들 합병시키고 원나라를 건설했을 때입니다. 같은 유목민이라는 점에서 몽골은 사촌 같은 입장이었지요. 당나라를 위협했던 토번이 이제는 그 후신인 원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나 원나라 황제는 티베트인의 불교에 깊이 감화됩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것 역시 나도 알고 있는 상식이었다. 그 이유로 원나라는 티베트 불교를 국교로 선포했다. 우리나라도 고려 공민왕 때 원나라의 영향으로 티베트 불교가 잠시나마 국교가 된 적이 있고, 그 흔적이 아직 남아 있다. 원나라는 티베트의 정복자에서 보호자 입장으로 바뀌었고, 티베트의 통치자에게 바다와 같은 지혜의 뜻인 ‘달라이 라마’라는 호칭을 봉헌하고 국사로 모셨다. 중국 말 그대로 허허실실(虛虛實實)이다.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김 기자의 말은 무엇일까.

“뭐가 문제였어? 역사에서 나라의 흥망은 계속 되었는데.”

내 생각과 같았는지 홍 사장이 다시 묻는다.

“불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자비 아납니까? 그리고 살생을 금하고 있고요. 티베트는 불교 교리를 정교하게 다룹니다. 정치와 종교 일체를 달라이 라마가 행사합니다. 그가 통치를 하는 동안 티베트인들의 야성은 순치 된 거죠.”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일례로 중국이 티베트를 해방시킨다는 선무 방송을 해달 때, 티베트 민중들은 달라이 라마만 바라보았습니다. 살아 있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중국군이 쳐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갈팡질팡하던 달라이 라마는 포고령을 내립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김 기자의 말이 흥미로웠다.

“전 국민이 대 중국 항쟁에 나서라는 포고령이 아니라,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중국을 막아 달

라는. 후후, 그 결과가 지금 중국에 예속 된 티베트가 된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군. 그 달라이 라마가 지금 인도 다름살라에 있는 그 양반 맞아?”

“예, 바로 그 달라이 라마 14세죠. 그쪽으로 도망쳐 망명정부를 세웠습니다만 이제 그 사람 입장이 묘해졌지요.”

“왜? 노벨평화상도 받고 전 세계로부터 존경과 경외를 받고 있는데.”

“정치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국경 문제 때문에 중국은 그동안 인도와 두 차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접경인 히말라야 국경도 46년간 폐쇄했고요. 양국은 양숙이 된 거지요. 그러므로 중국 견제를 위해 다름살라에 티베트 망명정부를 허가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는 재작년 중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티베트가 중국의 땅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요.”

한 쪽에서 이성열은 팔짱을 끼고 둘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김 기자는 기자라는 특성상 꼼꼼히 자료를 챙겼는지, 우리가 모르는 세세한 시사문제를 꿰고 있었다.

“우리가 탄 이 기차는 양국 국경인 히말라야 나투라 고개를 넘어 연장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협정을 맺었으니까요. 이제, 중국 황하 문명과 인도 인더스 문명이 철길로 만나는 거지요. 거기에 달라이 라마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용가치 때문에 인도가 달라이 라마를 그동안 껴안고 있었다는 말이군.”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가 우선인 시대가 되었지요. 양국 이 반세기 가깝게 막아 놓았던 히말라야 나투라 고개 국경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탄 이 기차도 그 고개를 넘어 인도 땅 강푼까지 연결 될 날도 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달라이 라마 입장이 애매해진 겁니다.”

그 때였다. 여태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성열이 김 기자에게 목청을 높여 항의를 한 것은.

“김 기자의 말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일은 아무도 예측 할 수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살아 있는 선지식인 달라이 라마의 생각을 누구도 알 수는 없지요. 그 분의 용서와 화해 정신은,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따라가지 못 할 정신적인 자산입니다. 물질에 맹종하는 그런 경제적 논리로 는 이해하지 못하지요.”

의외의 반격에 홍 사장과 나는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역사라는 긴 안목에서 보면 나라가 망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잠깐입니다. 중국 역시 수많은 소수 민족들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옛 소련이 해체 되듯 중국도 언젠가는 갈라 질 거고, 그때 티베트의 독립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기자의 입가에 웃음이 떠올랐다. 그건 냉소였다.

“그렇까요? 물론 이론상 그런 가정도 가능 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족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다 합쳐야 전 중국 국민의 오 퍼센트도 안 됩니다. 그리고 현대는 비정한 경제 전쟁 시대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한 축이 있는가 하면 인류의 미래를 진지하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풍요로운 현대에 정신적 공황이 왜 생기는 걸까요? 김 기자는 지금 행복 합니까? 돈 가지고도 이를 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상생을 위하여, 달라이 라마 같은 분들이 존재하는 거지요.”

이야기가 이상한 쪽으로 전개 되고 있었다. 그리고 전혀 그럴 것 같이 안 보였던 이성열이 꽤나 흥분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김 기자는 지지 않았다.

“브릭스라는 말 아시지요? 삼 년 전 인가, 미 금융투자 골드만삭스

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21세기는 2000년대를 전후해 초고속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와 중국 등, 신흥경제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 배경이 유행어가 된 브릭스입니다. 그리고 이 네 나라 가운데 중심국가로 중국과 인도 두 나라를 꼽았지요. 이제 이 둘 국가는 친디아라는 닉네임이 붙었지요.”

“나는 경제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더구나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모두 달라이 라마와 연관되는 겁니다. 세계 인구 1, 2위의 대국이 중국과 인도입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 전체의 반에 가까운 23억 명을 두 나라가 차지합니다. 그런 두 나라의 협력은 세계 정치와 경제에 혁신적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철도 공사는 필연적인 거고요.”

“그게 달라이 라마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지요?”

나는 대충 알아들겠는데 이성열은 진짜로 모르는 것 같았다. 김 기자가 심하다 싶을 만큼 오금을 질렀다.

“방 빼! 라는 거지요. 양쪽의 밀월이 깊어지는 것에 비례하여 달라이 라마가 그쪽에서 살기 힘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달라이 라마는 좀 비겁합니다.”

이성열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요? 나라를 뺏은 중국에 대한 원망보다는 용서를 설파하는 그분이 비겁하다니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을 호도하지 맙시다. 그 사람은 수 십 년 전부터, 자신에게 티베트 자치권만 달라고 중국에 애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는 라싸도 중국이 만든 시짱자치구예요. 이미 만들어진 자치구에 자치권력을 달라는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이었던 예전의 달라이 라마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어때서요? 티베트 민중이 그분을 원하고 있고 그분 역시 티베트인인데. 중국인들이 무력으로 점령한 땅을 내놓을 리 없으니 차선책으로 선택한 거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김 기자는 냉소를 거두고 정색을 했다.

“한마디만 말씀 드리죠. 중국은 그런 달라이 라마 제의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시다. 개인 자격으로 돌아오는 건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는 안 된다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멸망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독립군처럼 죽어도 독립이라는 기개를 보여야 하는 게 옳지요. 그래야 후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신념을 주는 거지요. 그런 정신이 면면이 계승되어도 독립이 될까 말까인데, 외교, 군사, 정치 모든 걸 주고 겨우 자치권을 행사하는 수반이 되겠다니요.”

긴 말을 끝낸 김 기자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는 듯 얼굴이 굳어졌다.

“오죽했으면 그런 제의를 했겠습니까? 히말라야 고개를 넘어 다름살라로 오다 얼어 죽어 가는 수많은 티베트인들을 생각하고, 자꾸 중국화 되어 가는 현실을 보며 결단을 내린 거겠지요. 김 기자 말대로 자비야 말로 불교의 핵심이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티베트 청년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걸 기억합니다. 달라이 라마의 중국 예속을 받아드리는 정책에 대해, ‘저주와 다름없는’ 처사라고 그들은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둘 사이의 토론이 격렬해지고 있었다. 사실 관계를 증명해 내는 김 기자의 기억력은 경탄 할 만하였다. 흥 사장 역시 이 토론이 흥미로운 모양이었다.

“혈기 왕성한 청년들 답군요. 그들이 있는한 티베트는 희망의 불씨가 있는 거고요. 그들의 비난 역시 티베트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 되니까요. 시속을 떠나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수행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습니까. 방법론에서 견해가 다른 그 청년들에게도, 달라이 라마는 여전히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오히려 청년연합은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인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힐 어떤 발언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얼 말하는 거지요?”

“중국이 티베트에서 스스로 철수하지 않는 한 결코 독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달라이 라마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의 바탕 위에서 완전 독립 정책이 바뀔 겁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홍콩을 닮은 1국 2체제 방안을 줄 곧 협상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외교와 국방은 중국이 관장하더라도 경제와 사회, 문화와 교육은 티베트가 맡는 다는 거죠. 그건 티베트 민족 자치 방안이고 완전자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열은 김 기자의 의견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 건 분명했다. 그리고 달라이 라마를 호칭 할 때 극존칭을 쓰는 걸 보면, 그는 티베트 불교에 관심 이상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에서 온 이성열이, 티베트를 처음 간다는 사람이, 정치적 상황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 끝없는 논쟁이 지겨웠는지 김 기자가 갑자기 화살을 국내로 돌렸다.

“나는 종교에 대하여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종교, 특히 지금의 한국불교에서의 행태가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한국이 티베트보다 먼저 불교가 들어왔고 선 불교라는 독특한 수행 방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을 보면 티베트 불교 열풍입니다. 수행자나 신도 가릴 것 없이 엄청난 사람들이 실제로 다름살라에 가곤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한국 불교는 희망이 없는 겁니까?”

김 기자의 물음에 잠시 뜸을 드리던 이성열이 조용히 말했다.

“글쎄요. 나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릅니다. 몇 년 전 달라이 라마께서 UCLA를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주립 대학이지요. 아내와 함께 그 강연을 들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감명 깊은 연설이었습니다. 세계의 선지식들이 인정할 만큼 박애와 인류애 정신이 티베트 불교에는 살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을 실천하시는 큰 수행자가 달라이 라마입니다. 한국 불교는 잘 모르지만 그를 친견하므로 자신의 깨달음을 더 심화 시키겠다는 욕망에서 그런 건 아닐까요?”

김 기자의 입가에 다시 냉소가 어렸다.

“깨달음이 뭐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걸 아는 게 깨달음입니까? 언제까지 그런 끝없는 질문과 답을 거듭해야 하지요? 물론 불교 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명의 세계에 아직까지도 그런 현학적인 물음이 통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김 기자의 말 때문일까. 아니면 그의 입가 비웃음을 본 탓일까. 이성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김 기자의 개인적 생각일 뿐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 의견일 뿐이지요. 세상에는 김 기자의 말대로 이론이나 과학, 혹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풀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를, 특히 불교를 폄하하자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작금의 국가간 경제 전쟁에서 종교의 영향력은 많이 축소 된 건 확실하지요. 티베트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종교보다 문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 드렸다면 상황이 많이 바뀌었겠지요. 이것도 부처님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에 안주해서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은 늘 바뀌게 되어 있지요. 존재하는 것은 모두 바뀐다는 게 제행무상이지요. 김 기자 고향이 어딘지 모르나 마을 뒷산은 늘 뒷산입니다. 앞산이 결코 될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산 뒤에 사는 사람은 그 산이 앞산이 됩니다. 그게 앞산이 맞습니까? 뒷산이 맞나요.”

어이가 없는지 김 기자가 허허 웃었다.

“당연히 보는 시각에 따라 앞산도 되고 뒷산도 되겠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직시하는 현실이 아무리 불변일 것 같아도 그건 본성이 아니지요. 만약 비행기를 타고 그 산을 본다면 이제 가운데 산이 될 겁니다.”

둘의 불꽃 튀는 토론이 재미있었다. 김 기자의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이 옳았고, 이성열의 말은 그런 대로 그럴 듯 했다.

“김 기자와 우리가 타고 있는 기차를 생각해 봅시다. 뭉뚱그려 철로 만들어 졌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차를 분해하면 그냥 고철 조각이 되겠지요. 그 고철을 더 분해하면 탄소라는 원소가 나올 겁니다. 탄소가 기차는 아니지요?”

“그건 대단히 현학적인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분해한다면 존재할 사물이 어디 한 가지라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탄소라는 원소마저 원자 사이를 분자가 돌고 있는 허공이 있습니다. 또한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게 실체가 있습니까? 바로 그런 공(空) 사상이야 말로 달라이 라마께서 전하는 강론 핵심입니다.”

이야기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게, 흥 사장 보기에 불안했던지 중간에 끼어들었다.

“자자, 이제 고만. 종교와 정치 이야기는 여행에 금물이야. 그 끝없는 논쟁이 우리 여행과 무슨 관계가 있어. 점심때가 가까워 오니 밥을 시키자고. 그리고 창 밖 풍경을 보니 술 생각이 간절한데 그것도 좀 시키고.”

“홍 사장님, 고도가 이미 4000미터를 넘었어요. 술 드시면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내 말은 간단히 홍 사장의 한마디에 묵살 되었다.

“머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시험해 봐야 알지. 그리고 이미 골이 아픈데 뭘. 고소증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의 논쟁 때문에 말이야. 하하. 농담이고. 술 시키는 이유는 저 환장할 창 밖 경치 때문이야.”

창 밖을 보니 비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멀리 무지개가 뜬다. 쌍무지개다. 제임스 힐튼이 쓴 소설 속 샹그리라라는 이 고원 어딘가에 있다고 했다. 이번 여행 손님은 괜찮았다. 이런 지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손님들을 만나는 게 나로서는 행운이었다. 김 기자의 말처럼 그렇게 뒤집히고 뒤바뀌는 역사는 홀러 오늘에 이르렀다. 이성열의 말대로 물질은 풍요롭지만 현대인은 외롭다는, 정신적 공황을 치유 할 수 있는 불법(佛法)의 땅이 티베트일까. 평화롭기 그지없는 광활한 고원이 이렇게 영욕으로 점철 된 곳이라는 새삼스러운 느낌이 든다. 김 기자 말대로 기차는 아득한 옛날인 1300여 년 전, 송첸캄포에게 시집가던 문성공주가 3년에 걸쳐 울며 걷던 길을 달려가고 있다. 그 멀었던 길을 단 48시간 만에 종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열의 말처럼 모든 게 변했다. 그 아득한 길을 우리는 안락하게 기차를 타고 가고 있다. 이 드넓은 평원에 수직으로 서 있는 건 송전탑과 산 뿐이었고,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어안렌즈에 투영 된 것처럼 모두 둥글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질 때쯤 비가 변 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8월에 눈이라니! 묘한 기분이 든다. 북경의 끈적거렸던 더위가 꿈결

같다. 간간이 유목민들의 파오라는 천막이 보이고 그때면 틀림없이 불경이 적힌 오색 룡다가 펼쳐졌다. 룡다는 티베트 기도 깃발을 말하는데 영어로는 윈드 호스(wind horse) 즉, ‘바람 말’이란 뜻이다. 불심 돈독한 그들의 염원을 서방정토에 있는 부처님께 전해 달라는 깃발인데, 룡다에는 정말 날개 달린 천마도 그려져 있었다.

고소증에 불안 했지만 홍 사장이 따라 주는 술을 한 잔 마셨다.

“저게 뭐야? 도로 같은데. 저 트럭은 굼벵이를 닮았나 왜 저렇게 느려.”

홍 사장의 말을 듣고 보니 창 밖으로 ‘칭짱공로’가 보인다. 2차선 포장도로다. 이 도로는 거얼무에서부터 따라 붙었다. 아니, 따라 붙은 게 아니라 철도가, 도로를 따라 건설 된 것이다. 험악한 쿤룬 산맥을 넘는 이 도로 덕분에 철도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공급 될 수 있었겠다.

“트럭의 움직임이 거북이처럼 보이는 건, 짐을 많이 실은 탓도 있지만 희박한 산소 때문이겠지요. 중국은 1950년 티베트 침공에 성공했어요. 중국은 청해 성에서 라싸까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수만 마리의 낙타를 동원했는데, 1km 전진에 12마리가 죽어야 할 정도로 험난했었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인지 모를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려고 밝게 말했다.

“하하, 전설 같았던 그 말이 말 그대로 이젠 옛 이야기가 된 것이군.”

이성열이 문득 김 기자에게 술을 권한다.

“김 기자 말을 듣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역시 글을 쓰시는 분이라 정확한 정보를 많이 아시는군요.”

“별 말씀은. 순전히 개인적 견해에 불과합니다.”

김 기자가 마시고 원하는 잔을 이성열은 사양하지 않고 받는다.

“아마 우리에게는 공부야 필요 한 건지도 모릅니다. 신념이란 하루 이틀에 완성 되는 게 아니라면 말이지요. 그렇게 얻은 신념이야 말로 죽음에도 당당해 지는 것을 압니다. 제 아내처럼 말이지요.”

“에이, 이제 그런 대화는 끝. 한국인으로서의 처음일수도 있는 이기가 막힌 자연 구경 앞에 결론 없는 이야기로 시간 낭비 할 게 뭐있어. 자 한잔씩들 하자고.”

홍 사장은 이들의 대화를 잘랐다. 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토론이 계속 되다 보면 이성열에 대하여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저러나 이번 팀은 고산 체질인가? 나는 티베트로 두 번 비행기 타고 온 경험이 있는데 그때, 지근거리는 고소증에 얼마나 시달렸던가. 그런데 이번은 다르다. 베이스 캠프가 된 식당 칸에서 조심스레 고량주를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산소가 나오는 첨단 기차라 그럴까. 고소증의 약은 천천히 올라 고도를 높여가는 것이다. 아무리 빠른 기차라 하지만, 막막한 티베트 고원에 비하면 개미 마라톤에 불과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일본군이 만주 벌판으로 쳐들어갔을 때, 도로와 철도를 점령한 것에 불과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 칭짱 철도와 도로는, 티베트 고원에 비하면 그야 말로 점과 선밖에 안 된다. 아득하게 펼쳐진 저 구릉 뒤쪽에도, 시선이 닿지 않는 남쪽 어딘 가에도 천 년 전 자신들의 조상처럼 유목을 하는 티베트인들은 존재할 것이다. 혹, 김 기자는 점과 선만 보고 이곳이 중화되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닌지 모른다.

우리의 베이스캠프 식당 칸에 승무원들이 모여 들기 시작했다. 두 여자가 장비를 꺼내 놓고 맥박과 혈압을 재며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한가한 틈에 김 기자도 진료를 받기로 했다. 취재에 활용하려는 것 같았다. 내가 통역에 나섰다.

“간호사인가요?”

“아니요. 의사입니다.”

“그런데 왜 일반인 차림인가요? 하얀 가운을 입지 않고.”

김 기자의 손가락과 팔목에 기계 장치를 하던 여자가 웃는다.

“승객들이 필요 이상 겁을 먹을 것 같아 사복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당신은 혈압, 맥박 모두 이상 없습니다.”

“고소증으로 죽은 사람 없어요? 폐수종이나 뇌수종으로요.”

“없습니다.”

5000m가 가까운 고도에서에서, 고량주도 한잔 한 김 기자가 이상 없다니, 그 말이 내게는 좀 이상했다. 흥 사장도 궁금한 듯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검진을 받는 사이 자리를 뜬 이성열을 찾으러 일어섰다. 혹 그가 이번 토론으로 마음이라도 상하지 않았나 싶어서였다. 의자로 된 일반석을 지나 침대칸으로 가는 도중이었다. 란저우에서 탄 티베트 삼형제가 지루한지 노래를 부르고 있다. 머리를 땀아 찢찢 동여매고 붉은 리본을 단 전형적 티베트 복장의 그들은, 김 기자가 사진을 찍어 낮이 익었다. 알프스 요들처럼 청아한 목소리의 합창이 메나리 조 고음처리가 감동이다. 이들이 믿고 있는 부처님에 대한 찬 불가인지, 사랑 노래인지 모르나 투명한 고음이 펍 애절했다. 나라와 국적을 떠나 황량한 목초지에 사는 목동들은 원래 이런 노래를 부르나 싶었다. 너무 노래가 좋아 침대칸의 이성열을 불러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에게 중국말이 통하지 않았다. 나는 손짓 발짓으로 그들의 노래를 다시 청했다. 이성열을 불러 낸 것은 잘한 일이었다. 그 역시 이들의 노래에 흠뻑 빠진 듯 굳었던 얼굴이 펴지는 걸 볼 수 있었다.

드디어 해발 5072m 탕그라 역이 가까워진다. 탕그라 산맥은 청해성과 시짱 자치구를 나누는 경계선이며,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양자강의 발원지다. 그런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롭다. 쿤룬 산에 이르면

그 아름다움에 눈물이 마를 줄 모르고, 탕구라 산에 이르면 손으로 하늘을 잡을 수 있다던가. 둥그런 구름과 초원을 병풍처럼 에워싼 하얀 만년설은, 황량하고 쓸쓸한 풍경이기도 하지만 침묵 속에 무엇인가 초월한 그런 느낌도 들었다.

탕구라 역에 정차 하면 사진을 찍을 거라는 기대는 무산되었다. 김 기자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무인 정거장이었으므로 기차가 그냥 통과했기 때문이었다. 알프스 산맥 보다도 높은 곳에 만들어 진 역. 산소가 턱없이 부족하고 낮은 기압차이라 사람이 살 수 없어 무인역이었을까. 환경론자들은 자연에 거슬리는 이런 공사를 탐욕이라고 비판했으나, 나는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보는 것 같이 감동스럽기까지 했다. 기차가 라싸까지 6번만 쏜다고 해서 역이 그 숫자만큼 있는 줄 알았다. 그건 아니었다. 무인 정거장도 있었고, 역무원이 부동 자세로 기차를 배웅하는 유인 정거장도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이 철도는 시작일 뿐이다. 티베트 고원에 무진장한 지하자원을 실어 나를 화물차와, 소위 완행열차도 다녀야 할 때쯤이면, 저런 빈 역사도 불비게 될 것이다.

식당 칸으로 돌아오니 홍 사장이 중년의 중국 남자와 대화를 나누며, 말이 통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서울서 가져 온 진공 포장된 사탕과, 간식 봉지들이 기압 차이로 공처럼 부풀어 올라 있다. 그럼에도 심각한 고소증이 없는 걸 보면 다행스런 일이었다. 기차가 산소를 공급하여 그런지 그 사이 적응이 된 모양이다. 홍 사장의 말을 통역했다.

“어디서 오셨나요? 왜 티베트를 갑니까?”

“위난성에서 왔어요. 중국 본토에서는 사업이 힘들어요.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니 사업 할 게 있나 가보는 중입니다. 중국 본토는 너무 경쟁이 심하거든요.”

그 말을 듣자 홍 사장의 눈은 빛났다.

“라싸에서 사업을 하려는 거군요.”

“그건 좀 생각해야 할 것이고요. 내 생각은 야둥(亞東) 근처로 가보려 합니다. 이 철도가 몇 년 안에 그쪽까지 연결 된다고 하더군요.”

칭짱 철도는 라싸까지 개통되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신천지를 찾아 왔다는 사람이 말하는 야둥은, 티베트 제2의 도시 시가체 행정구역이다. 거기서 인도는 금방이다. 고대로부터 왕래가 있었던 나투라 고개만 넘으면 되니까. 폐쇄 되어있던 그 고개 길이 칭짱 철도 개통을 기점으로 다시 열렸다고 말한다. 야둥이 그런 곳이라는 건 김 기자의 말을 듣고 알고 있었다. 그 중국인의 말에 따르면 야둥에는, 장사꾼으로 소문 난 위난성 사람들이 벌써 많은 건물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답게 홍 사장과 그 사람은 많은 정보를 주고받았다. 그들의 말을 소통시키며, 사업은 재빠른 판단이 필요한 것을 나는 새삼 알게 되었다. 중국인 사업가들에게 티베트는 신천지겠다. 그런 신천지에의 이주를 중국 당국은 부추기고 있었다. 장사꾼에겐 신천지로, 학생들에겐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서부로 가자!”고, 구호성 슬로건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 결과, 도시에서는 중국인들의 수가 원주민인 티베트인들을 이미 압도 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은 심화 될 것이다. 홍 사장과 중국인 사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 기자는 혼자 말처럼 뇌까렸다.

“티베트에서는 여자가 아기를 낳지만, 중국인들은 기차가 사람을 낳는군.”

그건 맞는 말이다. 기차는, 사람처럼 한 명씩이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쏟아 낸다. 티베트 여자가 아기를 낳는 속도를 기차에 비할 수 있으랴. 그럼에도 본토 각지에서 출발하는 사람을 낳는 기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 질 것이다.

오후가 되며 기차는 마지막 역 나취를 남겨두고 있다. 초원과 민둥산에 야크와 양들이 시간이 지나며 그 개체 수가 더 많아 진다. 벌써 기차를 학습했는지 동물들은 고개도 안 돌리고 풀을 뜯기가 바쁘다. 철길은 흙과 자갈을 돋우고 새 길로 탄생된 것이다. 양쪽에 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한 방책을 세워 놓았다. 그러나 그건 동물에게는 인위적 분단선이 될 수도 있어 보였다. 야크나 양들에게 접근 금지 분단선은, 50미터 혹은 100미터에 하나씩 뚫려 있는 통로로 왕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신경 쓴다는 게 가당한 일이다. 그러나 검은 점, 흰 점처럼 박혀 있는 야크와 양이 사람 글을 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쪽과 저쪽의 좋은, 철도로 나누어 진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기차는 나취에서 서서히 고도를 내리고 있다. 기차에 비치 된 중국 잡지에서 본 칭짱 철도의 단면은, 4900m 나취를 정점으로 라싸를 향하여 줄곧 내리막길이었다. 고도를 내리며 양과 야크가 더욱 많아 졌다 그리고 티베트인들의 사각형 흙집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싸 강이 분명한 물줄기 양안의 곡지 평야에는 티베트인들의 주식인 찰바의 원료 '라이보리'가 누렇게 익고 있었다. 문성공주가 3년이 넘게 걸어왔던, 종착지 라싸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인간이 만든 문명의 힘이고, 김기자의 말대로 중국 경제의 힘이다.

“대단하군. 정말 인간의 힘은 대단해.”

홍 사장이 어둠이 짙어지는 창 밖을 보며 우리가 탄 기차의 위대성을, 그것을 만들어 낸 사람들의 저력에 경탄한다는 말을 했다. 김기자 역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제 중국은 이 기차 길로 인도양까지 물류 수송을 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우리 한국에게도 영향이 없는 게 아니지요. 북한과 정치

적 해결만 된다면 부산에서 기차타고 히말라야 넘어 인도까지 간다는 말이니까요.”

“그러게! 정말 꿈같은 현실이야. 중국의 힘을 제대로 보는 것 같군. 김 기자, 욕심 많은 중국이 여기서 끝내지 않겠지?”

“그럼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팔을 거쳐 인도로 가는 길도 구체적인 논의 선상에 있다고 합니다. 라싸와 티베트의 2대 도시 시가체를 잇는 칭짱 철도의 첫 번째 지선 건설 작업은 벌써 측량이 시작되었는데요. 내년 중에 건설이 시작돼 3년 안에 마무리 될 거랍니다. 이 건 길의 진보가 아니라 혁명이라 물러도 무방한 일이지요.”

기차라는 역할이 새삼스러웠다. 어디서 저런 정보를 알았을까. 김 기자는 내가 해야 할 가이드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건 좋은 일이고 나는 거기에 거부감은 없었다. 기차가 연착되어 라싸에 도착한 시간은 예정 시간을 한 시간 가까이 초과하고 있었다. 어둠이 티베트 고원에 장막을 친 듯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드디어 고단한, 그러나 다이 나믹 했던 여정이 끝났다. 밤 9시 30분 기차는 라싸 역에 멈췄다.

라싸 역에는 북경여행사 왕사장과 연결 되어 있는, 현지여행사 조 선죽 김석민이라는 사람이 마중을 나왔다.

“축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칭짱 철도를 타고 라싸를 방문한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인 것 같군요.”

“그래요? 그것 참 즐거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잔뜩 겁먹었던 입경 허가서를 기차에서 보자는 사람도 없더군요.”

손님들은 모르지만 그걸 미끼로 폭리를 취하는 이들의 행태를 내가 슬쩍 꼬집은 것이었다. 그 말에 김씨는 북한 말처럼 들리는 조선족 특유 억양으로 대답한다.

“필요 없는 그런 걸 왜 법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만약 걸리면 바로 잡혀가니까 지켜야 편하지요.”

라싸 역은 근대식 건물로 지어진 상당한 크기였다. 벽면 한 쪽에 우리가 지나 온 칭짱 철도가 부조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 앞에 서니 과연 먼 길이었고, 험난한 산과 고원을 횡단한 철도라는 게 사실적으로 눈에 들어왔다.

불야성을 이룬 라싸는 이미 2년 전에 와 보았던 도시가 아니었다. 물론 그때도 은둔의 땅과는 거리가 멀었었다. 문명이 넘치는 라싸 시내를 보며 내가 은근히 꿈꾸었던 라싸는 없다, 라고 생각했었다. 2년 사이에 라싸는 번영을 누리는 중국의 많은 도시 중 한 부분에 불과했다. 이성열이 포탈라 궁을 발견하고 낮은 탄성을 지른다. 불가사의한 건축물이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포탈라 궁이, 밤 조명에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시내 어디서나 조망되는 포탈라 궁은, 우후죽순처럼 치솟는 빌딩에 대비되어 예전처럼 충격으로 다가 서지 않았다. 라싸는 신생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었다. 예약 해 놓은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홍 사장이 김석민에게 물었다.

“도시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라싸의 인구는 대략 46만 명쯤 되는데 그 중 30만 명이 한족이지요.”

김 씨의 한마디로 중화 된 티베트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

“기차 개통으로 몰려 온 사람들 맞을 호텔은 충분합니까?”

“아니요. 잠자리가 모자라 호텔 복도에서 잠 잘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에 따라 자본도 많이 들어 와 시내 곳곳엔 건축 붐이 한창입니다.”

“복 터졌군.”

홍 사장 땀에는 빈정거린다는 말이었는데 신이 난 듯 김 씨는 말을 받았다.

“한국 사람들 표현대로 대박이지요. 밀리는 관광객을 도저히 소화

시킬 수 없어 이곳에 오지 말라고 홍보를 하는 실정입니다. 입장료 100위안인 포탈라 궁도 압표가 3~400위안씩 하는데 그곳도 하루 전에 인원을 통제 합니다.”

모두 칭짱 철도의 힘이다. 뒤 좌석에 앉은 김 기자가 목을 빼며 말했다.

“티베트와 더불어 분리 독립 움직임이 활발한 신강위구르족자치구를 가본 적이 있어요. 사년 전 일이지요. 수도인 우루무치와 최서단 국경도시인 카슈가르를 잇는 남 신강 철도가 완공됐다고 해서요. 그런데 철도 개통 이후 카슈가르의 상권은 모두 한족에게 넘어갔고, 시 중심가는 밀려드는 한족이 점령한 상태더군요. 역시 라싸의 상황도 똑 같은 처지가 되어 버린 셈입니다.”

시내를 관통하는 라싸 강에도 횡단 다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시내 는 네온사인으로 휘황했다. 창 밖 라싸 도심 속에 우뚝한 포탈라 궁 을 보던 이성열이,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현상을 달라이 라마께서는 이미 예견했습니다. 미국 초청 강 연을 통해 말했지요. 보통 철도의 연결은 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칭짱 철도는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를 초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지금 티베트에서 문화적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이 한족 이천 만 명을 대거 티베트로 이주시킴으로써 티베트 내에서조차, 티베트 인들을 소수민족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요.”

끔찍한 말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티베트인들 숫자는, 모두 이백 삼십만 밖에 되지 않았다. 그 열배 가까이 되는 사람을 이주 시킨다 니. 달라이 라마는 칭짱 철도 부설에 따른 위기감 간파했지만, 상황 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다. 북경에서 본 중국 관영 CCTV는 티베 트 여행 산업을 소개하면서, 관광산업을 위해 중국 지적 인력이 티베 트로 들어가는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땅 전체로 볼 때는, 아직 중국

에서 유일하게 소수민족인 티베트인의 인구 비율이 높다. 그러나 청장철도가 중국정부의 의도대로 인구 비율조차 역전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당연히 경제 문화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도시를 기점으로 차츰 변방까지 퍼져 나갈 것이다.

우리 숙소는 포탈라 궁이 바라보이는 신축 호텔이었다. 수목 한계선을 넘은 민둥산이 에워싸고 있는 분지가 라싸다. 우리가 횡단해 온 고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해발 3600m였다. 그러나 이 높이도 백두산보다 한참이 높은 곳이다. 고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지이기에 애써 가꾸 놓은 나무들이 눈물겹다. 사막의 도시처럼 척박한 땅에, 근대적 도시로 거듭난 티베트에서 변한 게 없다면, 아침 풍경이 아닐까 싶었다. 마니차를 돌리며, 포탈라 궁을 한 바퀴 도는 행동인, ‘코라’를 하는 티베트인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사흘 간, 자유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성열은 조강사원과 포탈라궁 등 티베트 성지 순례를 했고, 김 기자는 조선족 김씨를 통역으로 대동하고 부지런히 취재를 다녔다. 나는 홍 사장과 카펫 공장을 방문하고, 기차에서 만난 중국인과 함께 인도 국경 야동을 다녀왔다. 그렇게 사흘을 보낸 후, 나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고소 적응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라싸로 들어 온지 나흘 째 되는 날, 우리는 길을 나섰다. 몇 개의 지류가 합수되는 라싸 강변 넓은 평야엔 가을 추수가 한창이었다. 우리가 대절한 차량이 달리는 길은 한동안 칭짱 철도와 함께 가고 있었다. 확인해 보니 그 도로는 칭짱 공로였다. 그 길은 또한 이성열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하늘 호수 가는 길이기도 했다. 라싸를 출발하여 3시간쯤 계속해서 고원으로 올랐다. 해발 4500m 가까이 올라 접근해 본 철길은 생각보다 높고 직선으로 아득하게 뻗어 있었다. 두 줄기 철길이 시선이 끝나는 곳에서 한 점으로 합쳐지고 있었다. 과연

어마어마한 토목 공사였음을 실감케 했다. 김 기자와 함께 그림이 될 만한 초원에서 기차를 기다렸다. 바람이 몹시 차가웠고 빗발이 간간이 뿌렸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초원은 황량했지만 야크와 양떼들은 여전히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한동안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타고 온 것이 분명한 기차가 북경으로 돌아가기 위해 멀리 지평선에서 점으로 나타났다. 문득, 이렇게 드문드문 기차가 다녀서야 무슨 경제적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이 기차 길의 개통으로, 물류비용이 무려 75%가 줄었다는 통계를 확인했다고 김 기자는 말했다.

라싸 출발 기차도 우리처럼 칭짱 철도를 한 낮에만 통과하기 때문에 촬영은 오전에 끝났다. 촬영이 끝나자 우리는 내쳐 하늘 호수로 달렸다. 나는 이성열이 말한 설련화를 볼 수 있다는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과연 그 꽃을 찾을 수 있을까? 이성열이 그 꽃으로 자신의 아내를 구해 낼 수 있을까. 아무래도 그건 허망한 기대처럼 생각 들었으나 그 꽃이 궁금한 건 사실이었다. 하늘 호수 가는 길은 말끔히 포장 된 아스팔트 신생의 도로였다. 해발 오천 미터가 넘는 '라젠' 고개를 넘어 호수까지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기지개를 편 중국 자본이 이곳까지 밀려들었다는 증거였다.

라젠 고개 정상에는 티베트인들이 걸어 놓은 오색 룡다가 꽃잎처럼 휘날리고 있었다. 고개 마루에서 내려다보이는 하늘 호수가 아득하게 보였다. 이 호수도 다른 곳처럼 소금물이었다. 그래서 드넓은 호수가 더 바다 같이 보였는지도 모른다. 그 바다 같은 호수 주변은 하얗게 만년설을 이고 있는 설산들이 병풍처럼 둘러 서 있다. 손을 뻗으면 파란 하늘이 만져질 것 같다. 티베트가 워낙 높은 곳이라 하늘이 내려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 들었다. 검은 가방을 맨 채 이성열은 묵묵히 하늘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 차에 오른 우리는 호수로 향했다. 곡예 하듯 고개 길을 내려서니 이번에는 굉장히 너른 평원이 펼쳐진다. 우리는 새롭게 바뀌는 풍경에 매료당했다. 평원 먼 곳에 유목민 천막이 보이고 야크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눈앞에 보이는 호수까지는 한참이 걸렸다. 워낙 공기가 맑고 희박해 그런지 이곳에서는 원근 구별이 잘 되지 않았다. 호수를 에워싼 만년설산이 손에 잡힐 듯 가깝고 눈 아래로는 가뭇하게 평원이 보였다. 수목 한계선을 훨씬 넘어 선 이곳은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고 듽성듬성 풀만 자라는 평원이었다.

드디어 우리는 호수 가에 도착했다. 성스러운 호수답게 순례를 온 많은 티베트인들이 보였다. 우리는 물가를 향해 천천히 걸었는데, 앞에 양 손에 송판 조각을 붙인 티베트인 한 사람이 보였다. 그는 일어서서 한 걸음 내 디딘 후, 몸 전체를 땅에 붙이고, 다시 엎드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다. 티베트의 신성한 곳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볼 때 그건 한 마리 자벌레였다. 한 걸음 내 디딘 후, 던지듯 몸을 땅에 붙일 때는 풀썩 먼지가 일어났다. 몸을 던지다시피 격렬하기에 손을 보호 하려 송판을 댄 것처럼 보였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맹렬하게 오체투지를 하는지 주위를 살펴봤는데, 이 사람처럼 격렬하게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한없이 자세를 낮추게 하는지 놀라운 일이다. 김기자도 궁금했는지 나에게 언제까지 그런 행위를 할 건가를 물어 보라고 했다. 다행이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젊은이였다. 그는 두 달간 그렇게 오체투지를 하며 이 호수를 돈다고 했다. 그리고 이 하늘 호수는 티베트인들에게 으뜸으로 신성한 곳이라고 말한다. 걸어서도 까마득한 거리인데 저렇게 자벌레처럼 간다면 어느 세월에도 코라를 완성할 수 있을까. 실제로 어느 티베트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변방에서 라싸에 있는 포탈라 궁전까지 오체투지로 간다고 했다. 그게 몇

년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그런 무모한 행위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티베트 불교의 힘이라 이해 할 것인가.

그 모습을 열심히 카메라에 담던 김 기자가 혀를 찬다.

“정말 대단하군.”

합장을 한 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성열이 김 기자에게 말을 건넸다.

“이게 이들이 믿는 종교의 힘입니다.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 이들에게 티베트 불교는 종교를 넘어서 삶의 일부가 된 것이죠. 우리가 밥 먹고 잠드는 것처럼 이들의 수련방식은 이미 생활입니다.”

강렬한 햇살이 다가왔는지 눈을 잔뜩 찌푸린 채 홍 사장이 말했다.

“그게. 기차에서 이성열씨가 말 한 신념이라는 거군요. 총으로도 어쩔 수 없는 신념. 그러니 중국에서 보면 눈엣 가시 같은 달라이 라마와 불교가 얼마나 밍글소? 종교는 아편이라고 정의한 공산주의자들인데.”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간디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도 자비의 힘으로 원수인 중국인들을 용서하고 있는 거지요. 오히려 그분께서는 중국을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군요.”

내가 듣기에 이성열의 말은 황당한 논리처럼 들렸다. 홍 사장도 그런 생각인가 보았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제 아내의 말입니다.”

“정말이라면 대단한 일이군. 그런데 그런 부인은 언제 만났소?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티베트 불교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소.”

“아내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민 간 순서는 다르지만 동

창회에서 만났지요. 그러나 이성으로 느끼기 시작 한 것은 아내가 일본 유학을 끝내고 미국으로 귀환한 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일본은 티베트 불교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오래 전부터 관심을 기우리고 있었다는군요. 귀국 환영 모임에서 그녀를 다시 만난 순간, 무언가 내 속에서 끓어올랐고 아득해졌지요.”

“하하. 원래 사랑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성열씨도 불교 공부를 했습니까?”

“아뇨. 전 아닙니다. 집 사람만 불교철학을 했지요. 아내가 절망하고 있는 나를 위로하려, 달라이 라마가 말한 공 사상을 이해시키려 한 것을 잘 압니다. 저는 아내가 나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건성으로 들었거든요.”

“베게 밑 송사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 베게를 쓰는 아내의 말을 결국 따라 간다는 비유지요. 귀에 대고 밤마다 속삭이는데 당 할 남자가 있겠어? 하하.”

장난처럼 내 던진 홍 사장의 말은, 불교를 믿지 않던 이성열이 아내에 영향으로 불교에 빠졌다는 말일 터였다. 그러나 이성열은 진지하게 대답을 했다.

“그녀의 말에 따라 간 것은 아닙니다. 의심이 들어 관련 서적을 보며 스스로 확신을 한 거지요.”

조금 무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홍 사장이 말을 바꾸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면서 학생 때는 못 느끼던 감정이 갑자기 생겼다는 말인데, 부인도 그런 감정을 함께 느꼈다는 건가요?”

“가까이 다가서는 나를 보는 그녀는 당황했지요. 침묵해야 할지, 미소 지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점차 만나가면서 그녀의 생각을 알 것 같았습니다.”

“성열 씨는 무척 소심한 사람 같은데, 그때는 용기를 내었군.”

“만약 평소의 저대로 소극적으로 있다가는 그녀를 놓칠 것 같았습니다.”

이성열의 말대로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건가. 사랑은 그런 것일까? 내게도 그런 사랑이 올 때가 있을까. 설명할 수 없는 게 사랑이라고 하던데 이성열의 말처럼 사랑이란, 말보다 눈빛이 우선이라 것이 듣기 좋았다.

“무언으로 소통하는 그런 사랑이었지요. 내 영혼의 반쪽을 찾은 것이니까요. 결혼 상대자는 시간을 두고 만나, 서로 천천히 알아가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도 그때는 안 들렸습니다.”

“그렇겠지. 사랑은 콩깍지를 눈에 씌운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요.”

물가에는 조잡한 수공예품을 팔기 위해 호객하는 티베트인들의 상흔이 극성스러웠다. 본업인 유목을 하지 않고 장사를 하게 만든 것도 문명의 힘인지 모른다. 그러나 바람에 날리는 룡다와, 신성한 호수를 한 바퀴 도는 코라를 하는 사람들의 경건한 표정이 보기 좋다.

나는 그때부터 유심히 호수가 땅을 살폈다. 이성열이 말한 설련화를 찾기 위해서였다. 들판 들판 난 풀 종류는 가끔 보였지만 어디에도 꽃은 없었다. 이성열의 실망이 클 것 같았다. 흥 사장도 그랬지만 김 기자도 역시 꽃을 찾으려는지 땅을 열심히 살피고 있었다. 문득 이성열을 찾으니 그는 가방을 맨 채 물이 찰랑이는 호수 가에서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꽃을 찾을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 이리 저리 움직이며 꽃을 찾던 김 기자도 포기했는지 호수 풍경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다. 우리가 살핀 땅에는 설련화는 고사하고 다른 꽃도 보이지 않았다. 흥 사장과 나도 꽃 찾기를 포기하고 물가로 가서 이성열 곁에 섰다. 가장 자리엔 흡사 바다의 파도처럼 물결이 치고 있었다. 한

쪽으로 호수를 마주 보는 바위산이 있었는데, 그 틈새에 티베트 불교 사원인 작은 곱파가 몇 채 보였다. 그곳에서 라마승들이 수행을 하고 했다.

우리는 물가를 떠나 바위산 쪽으로 갔다. 그곳엔 천막이 몇 채 있었다. 거기는 티베트인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차를 파는 곳이었다. 김 기자가 우리를 보며 웃었다.

“참 좋은 세상이네요. 아시아의 오지까지 기차를 타고 온 것도 믿어지지 않지만, 그 기차가 이들 티베트인 생활도 다 바꿔 놓았어요. 돈 벌이 맛을 알았으니까요. 이제 지구별엔 더이상 오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 기자의 말에 동의 한다는 듯 이성열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분석했듯 기차는 필연적으로 이곳에 변화를 불러 올 겁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을 위한 기차가 이미 아닙니다. 중국을 위한 칼날이지요. 단순한 쇳덩어리지만 티베트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말살할, 마구니 같은 존재로 기능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기차는 현실 아닙니까? 이성열 씨가 말하는 정신적인 것은 눈에 안보이지만 기차는 보이듯 말입니다.”

“자연계의 상호 존재의 가치를 무시한 기차가, 정치적 목적과 자원 수탈을 위하여 만들어 진 그것이, 저렇게 솟은 산과 호수보다 더 오래 존재 할까요? 저 호수가 짠 물인 것은 오래전엔 이곳도 바다 속이었다는 움직일 수없는 증겁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지요. 기차는 인드라의 그물을 외면한, 문명이라는 허명에 편승한 인간의 이기적인 오만일 뿐이지요.”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모호한 말은, 나도 어디선가 들은 것도 같지만 생각이 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견해는, 청짱 철도의 두 철길처럼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일까. 만약 철길이 만난다면 큰일 나듯, 둘의 생

각은 끝까지 함께 달리는 평행선이었다.

우리는 천막으로 들어가 밀크 차를 시켰다. 지저분한 천막 안은 역겨울 정도로 이상한 냄새로 차 있었다. 차를 끓이기 위해 불을 피운 연료 야크 똥 냄새였다. 야크 똥을 말린 연료가 이곳에서는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자연에서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완전한 자급자족 시스템이네.”

신기한 듯 흥 사장이 말린 야크 똥을 들어 이리저리 살펴본다. 가장자리가 얼룩진 지저분한 컵에 차를 한잔씩 받은 후 내가 설명을 했다.

“고지대인 티베트엔 나무가 없기에 야크 똥은 유일한 연료입니다. 야크야 말로 버릴 것 하나 없는 이들 유목민의 목숨 같은 것이지요. 젓과 고기, 털로는 옷을 짓고 가죽으로는 천막을 만듭니다. 이동할 때는 등짐을 지우고요.”

“양도 많던데 양젓도 많을 테고.”

“양은 일 년에 사 개월 밖에 젓이 안 나온답니다. 야크 치즈 하나씩 사주세요. 완전 자연식이고 향이 아주 좋습니다. 아 참! 설련화를 물어 봐야겠지요?”

나는 천막 주인에게 설련화의 존재를 물었다. 이성열도 긴장하는 듯 했다. 우리는 티베트인의 대답을 기다렸다. 역시 꽃은 없었다. 그런 꽃은 처음 들어 본다는 대답이었다. 원래 고도가 높아 여름에만 잠깐 손톱만한 꽃을 피우는 건 있어도, 겨울이 오고 있는 지금은 아무런 꽃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는 원주민인 그는, 꽃을 약으로 쓴다는 말도 나에게 처음 듣는다고 했다. 몇 번이고 확인하는 나를 그만하라고 말린 것은 이성열이었다. 실망이 클 그의 표정은, 그러나 의외로 평온했다. 흥미를 가지고 티베트인의 대답을 기다리던 김 기자는 그럼 그렇지, 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 본초강목인가 뭐라는 의서는 가짜예요. 물론 이성열씨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하늘 호수에 설련화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군요.”

이성열은 말없이 차만 홀짝이고 있었다. 우리는 차를 마시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하늘 호수를 좀 더 높은 곳에서 조망하기 위하여 바위산으로 갔고, 가파른 그 산을 올랐다. 그리 높지는 않았으나 고도가 높은 탓에 몇 발자국 못 가 숨을 몰아쉬어야 했다. 조금 무리하여 속도를 내면 가슴에 빠근한 통증이 밀려 왔다.

드디어 우리는 바위산 정상에 올라섰다. 커다랗고 편편한 바위가 정상부를 이루고 있었다. 이곳이 하늘 호수를 감상하기 가장 좋은 지점이었다. 모두의 눈에서 가공되지 않은 진짜 자연을 목도하며 놀랍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날씨가 쾌청하기에 압도하듯 펼쳐진 넓은 호수와, 그것을 에워싼 장대한 만년설산맥이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여름철에 잘 나타났던 뭉게구름과 장엄한 하얀 산이 어울려 몽환 같은 풍경이었다. 말끔하게 드러난 호수와 그것을 에워싼 하얀 산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운이 좋은 편이었다. 파란하늘은 너무 짙어서 잉크 빛을 띠고 있다. 파랑과 하얀 색은 너무 강렬하게 우리 주변을 아우르고 있다. 워낙 호수가 넓어 구름이 만든 그늘도 제 각각이었고, 구름 틈 사이로는 햇살이 쏟아지듯 내리고 있었다. 바위 산 정상에서 호숫가까지 매어 달아 놓은 무수한 룡다가 꽃처럼 휘날리고 있다.

“야, 이거 정말 환상적 풍경인데. 저 하얀 산 좀 봐. 그리고 저 물 색깔도. 하나의 호수인데 물색이 여러 가지로 보이네.”

홍 사장의 말처럼 우리는 바위에 앉아, 신이 빚어 낸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문득 생각 난 듯 홍 사장이 이성열에게 말을 건넨다.

“아무리 살펴보고 또 가이드가 티베트 사람에게 물어 봐도, 설련화

는 없다는데 실망이 크겠군요.”

검은 가방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열려던 이성열이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요. 저는 설련화를 찾았습니다. 너무 많아 지금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가 손을 들어 가리키는 곳은 막막한 하늘이었다. 그리고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오색 룡다가 있을 뿐이었다. 이성열의 황당한 말에 우리는 그저, 그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꼭 한번 아내는 나와 함께 이곳을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나는 그 말을 들어 주지 못했습니다. 미국 생활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박사가 넘치는 미국이지만, 티베트 불교철학이라는 희귀성 때문인지, 아내는 비교적 쉽게 UCLA 동양학과 교수로 임용 되었습니다. 나도 그랬지만 아내 역시 많이 기뻐했지요. 그런데…… 임용 절차 중, 건강 진단을 받는 동안 그녀의 병이 밝혀졌습니다. 말기 암이라는 것이었지요.”

“저런, 저런 찢찢.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임용 될 정도의 재원이었군요. 재인박명이라더니…….”

진심으로 안 되었다는 듯 홍 사장이 혀를 찼다.

“그녀의 병이 불치라고 확정 되었을 때, 여러 곳의 진단이 같았을 때, 나를 위로 한 건 오히려 그녀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려운 말을 하면서 이성열은 이상하게도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내가 믿었던 부처님은 힘이 세더군요.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원래 관심이 없던 제가 불법을 믿게 된 것이지요. 엘에이 시

내에 예코 짝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 유일하게 군집을 이룬 연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청을 받고 매일 저녁 산책 겸 그 연꽃 코라를 돌았습니다.”

“코라라면 우리가 이곳에서 본 티베트인들의 순례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아내는 불교의 꽃이라는 연꽃을 좋아 했습니다. 그녀를 데리고 그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게 유일한 산책이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그 작은 공원 연꽃 코라를 못 돌 정도로 허약해 진 겁니다.”

“아이는 있었나요?”

거의 울상이 된 홍 사장이 물었다.

“아뇨. 아내의 오랜 공부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부인이 그렇게 이곳을 오고 싶어 했다면서, 함께 못 온 건 그 몸쓸 병 때문이란 말이군요.”

“기차에서 김 기자와 나눈 말은, 모두 아내에게 들은 말입니다. 불교의 뿌리가 되는 인도 철학에서는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바세계의 실상은 씨줄과 날줄로 얽혀있고 그 이음새마다 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은 서로 비추고 비추어지는 관계에 있다는 거지요. 이것과 저것이 소통하므로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말이겠습니다.”

홍 사장의 물음에는 아랑곳없이 자신의 말을 하는 이성열의 검은 머리칼이 바람에 날렸다.

“그러므로 혼자라는 아상은 없다는 거죠. 인드라의 세계는 넓은 것 뿐 아니라 깊기도 하더군요. 아내와 제 삶이 인(因)이라는 날줄과, 연(緣)이라는 씨줄로 엮어진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 인연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뿐만 아니라 생물과 무생물, 그리고 바람소리, 물소리까지

서로 교류하고 소통한다고 했습니다.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의 분별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성열의 말은 갈수록 깊어졌다.

“말기 암 환자가 그렇듯 다량의 진통제가 아내에겐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보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나에게 그녀는 부처님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아니, 이곳 하늘 호수이야기를 해 준 거죠.”

서늘한 바람이 앉아 있는 우리를 흔들고 호수 쪽으로 불어 갔다. 텅 빈 호수의 너른 공간과 건너편에 홀연히 솟은 하얀 산. 이런 풍경을 그녀가 남편에게 해 줬다는 말일까.

“불교 쪽에서 말하는 설련화 이야기도 그때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의 실체를 은유로 말했으나, 나는 그 말을 실지로 믿고 싶었습니다. 절박했으니까요. 내가 가서 그 꽃을 따올게. 그래서 당신을 살려낼 거야! 저는 실제로 그 설련화에 대하여 여러 문헌을 찾고 자료를 뒤지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하얗게 웃었지요.”

웃었다는 대목을 말하는 이성열의 입가에도 허허로운 미소가 흘렀다.

“은유로 말했다지만 아내는 그 존재를 뭐라고 말 하던가요?”

홍 사장이 설련화에 대한 미련이 남은 듯 물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너진다는 뜻으로 아내는 설련화를 설명했습니다. 영원히 늘, 그대로 있는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공즉시색, 부처님의 그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자신이 죽었다고 슬퍼할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설련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내는 자신이 내 곁에서 곧 떠날 것을 알고 있었지요. 혼자 남아

있는 저를 위로한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별하지 말고 초월하라는 말 이었습니다. 그 비유로 설련화를 든 겁니다.”

“…….”

“부처님의 법을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까. 마음공부라고 하지만 그건 조용한 공부가 아닙니다. 이 바위산 오르면서 보셨지요? 티베트 스님들도 이렇게 오지의 토굴에 앉아 홀로 면벽 수행을 했답니다.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주인 유명한 고승인 밀레레빠가 그랬고, 파드마 삼바바가 그랬답니다. 홀로 수행한다는 건, 겉으로 고요해 보이지만 스스로의 마음 속에선 피 튀기는 치열한 전쟁 같은 공부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면 무념무상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요. 그런 비유로 아내는 하늘 호수에 외롭게 피는 설련화를 말한 거라 생각 드네요. 자신의 죽음에 내가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위로를 한 거예요.”

“아주 속 깊은 분이였군요. 그런데…… 그런 아내의 뜻을 알고 있었나요?”

“여기 오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설련화를 볼 수 없었고 또 현지인이 그런 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문득 아내의 말 뜻을 알게 된 건, 바위 산을 오를 때였습니다. 그때 홀연히 안 거지요. 하늘 호수를 에워싼 모든 상징이 설련화라는 걸 말이지요.”

“그랬군요.”

홍 사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김 기자도 자꾸 마른기침을 해댔다.

“이제 꽃으로서 설련화를 찾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도 설련화의 존재를 믿습니다. 겨울이 가까우므로 꽃이 없다는 티베트인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렇게 많은데요. 가없이 너른 수면과, 그것을 웅위하듯 서있는 만년설을 쓴 화엄의 산들이 설련

화입니다. 티베트 고원 바람에 날리고 있는 저 오색 룡다가 설련화고요.”

이성열은 손으로 나부끼고 있는 룡다를 가리켰다. 그리고 보니 정말 오색 룡다는 꽃처럼 보이기도 했다. 만약 룡다가 설련화라면 그 숫자는 너무 많았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이성열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갑자기 먹먹해지고 코가 매워졌다. 이성열의 설련화는, 그의 손가락으로 가리킨 산이었고, 룡다였고, 호수에 비껴가는 햇살이었다. 만다라처럼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설산이 바로 설련화였다니. 저렇게 바람에 날리고 있는 오색 룡다가 설련화였다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성열이, 아내를 살려 내려는 욕심으로 만든 상상 속 설련화는 정말 존재하는가.

여보, 그건 실체가 없는 거야. 눈 속에서도 피는 꽃을 비유해 열심히 수행하라는 법문이야. 공부하는 과정은 외롭고 춥지만 홀로 이겨내어 꽃 피우라는 은유야. 아냐! 있어. 여기 자활본초강목을 좀 봐. 분명히 그림도 있잖아. 내가 그 꽃을 찾아 올 거야. 바위산에 부는 바람결에 그런 대화가 들리는 듯했다. 그런 말을 나누며 떠날 준비와 보낼 연습을 했던 부부의 모습도 떠올랐다.

“티베트 불경이 가득 써진 기도 깃발 룡다는 실제로 날개 달린 천마가 그려져 있지요. 이제 룡다, 아니 설련화가 그녀와 함께 하늘로 달려 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를 온 것은…….”

말을 하며 이성열은 검은 가방에서 하얀 종이 상자를 꺼냈다.

“나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 주러 이곳에 온 것입니다. 설련화가 있다는 것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두 마음이 지어낸 허상이겠지요. 그러나 늦게라도 그녀와 함께 이곳에 온 건 작은 행복입니다.”

바위에서 일어 선 그는 그 상자를 열고 무엇 인가 꺼내 허공에 뿌렸다. 그것은 하얗게 퍼지면서 호수 쪽으로 날렸다. 허공에 그물처럼

하얗게 펴지는 그것 사이로 파란 하늘이, 파란 호수가, 하얀 산이, 하얀 구름이 흔들렸다. 하늘 가득, 만다라처럼 펼쳐지는 룡다도 보였다. 바람에 나부끼는 색색의 룡다가 정말 꽃이 되었고 그 사이로 하얀 꽃가루처럼 유골이 퍼져 갔다.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성열이, 왜 그렇게 검은 가방을 내내 소중하게 간직해 왔는지 알았다.

“난 아내와 함께 기차를 타고 이곳에 온 겁니다. 아내는 설련화의 존재를 믿되, 믿지 않았습니다. 불교 쪽의 상징으로 설련화를 말했지만, 어느 사이 내게는 그것이 실존하는 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던 거죠.”

산골을 하는 이성열의 모습을 지켜보던 김 기자가 낮은 음색으로 말했다.

“부인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실물로 설련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 꽃의 존재를 지금도 확신합니다.”

이성열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것의 존재를 믿는 것 외에, 내가 아내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 참담한 심사를…….”

나는 좀 더 그 말을 이해 할 수 있었다. 이들 부부가 설련화를 찾으려 한 것은 같았으나 방법이 달랐다는 말이었다. 아내와는 달리 이성열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꽃을 찾으려 했다. 죽음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아무것도 해 줄게 없는 남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아무 것도 없었다. 아내는 상상 속의 꽃을 말했으나 이성열은 그 꽃의 존재를 믿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눈앞에서 죽어 가는 아내를 위해, 이성열이 믿을 건 설련화 밖에 없었다. 문명의 첨단을 가는 미국인테도. 아내와 함께 이곳에 온 것이라는 이성열의 말 역시, 방금 전 하늘에 날린 유골 가루에서 알 수 있었다.

“죽음까지도 담담하게 받아 드렸던, 그녀에게 신념을 주었던 불법의 땅을 천천히 보여주고 싶었지요. 아니 그 말은 틀렸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걸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지요. 비행기를 놔두고 오래 시간 걸리는 기차를 탄 이유가 그겁니다.”

해님이가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말없이 이성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무겁거나 가벼운 분별마저도 이제 모두 버린 여자. 아내의 숨털처럼 가벼워진 영혼도 지금은 개운할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더이상 저에게 현상의 설련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피어난 한 송이로 족합니다.”

어느 새 저녁노을이 밀려왔다. 하늘 호수는 한 가지 색을 더 입었다. 붉은 빛이, 산과 구름을 붉게 물들이다가, 호수에 길고 긴 붉은 구름 다리를 만들어 놓는다. 물결의 잔주름이 석양을 받아 붉은 물비늘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 풍경 때문일 것이다. 갑자기 주르륵 눈물이 흘러 내렸다. 우리는 말없이 한동안 앉아 있었다. 텅 빈 공간만큼 허허로움이 가슴에 채워지고 있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만 일어서자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고백성사

전지은

“이건 아니다 싶어 찾아 왔습니다.”

고백소의 작은 창이 열리고 신부가 성호를 굿기도 전에 큰 소리를 질렀다.

“조용, 조용히 천천히 말씀 하셔도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소리의 톤을 좀 가라앉히려 해도 잘 안 된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킨다. 배에 힘을 주며 심호흡을 한다.

“글쎄, 그것들을 한국 마켓에서 만났지 뭐니까. 한 번은 맞닥트릴 줄 알았지요.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만날 수 있겠지요. 그래도 막상 닥치니, 기분 더럽더군요. 제가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년이



미주 《한국일보》 문예공모 단편소설 입선. 《한국수필》로 등단. 제4회 재외동포 문학상 소설부문 입상. 수필집 『은자작나무가 서 있는 마을』 외 동인집 다수.

글쎄 내게 다가오더니,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지 신랑이라며, ‘제 신랑……’ 돈 년이죠, 완전히 돈 년……. 정신이 나간 년 아니면 그렇게 얼굴 뺨뺨이 들고 내게 다가와 인사를 시키겠어요. 미친 거죠, 미쳐……. 오히려 그 남자가 쭈뼛거리며 피해 가더군요.”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화가 났다. 밤새 한숨 못 자고 이른 새벽에 신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부는 순순히 그 시간에 와도 좋다고 하였다. 얼굴 맞대고 하는 면담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더라도 얼굴을 보이지 않는 편이 나을 듯 싶어 고백소를 택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성당 문은 열려 있었다. 성당 안의 새벽 공기는 무척 찼다. 차가움 속에서 조금씩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마음은 진정이 되질 않았다. 마음의 다급함이 더해질수록 빠르고 높아지는 소리들은 고백소를 벗어나 빈 공간의 성당 벽면에서 공명음이 되어 울린다.

“오래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사제관으로 들어가시지요. 서로 누군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새벽 공기가 너무 참니다.”

내 기억 속의 예전 성당 벽면은 하얀색이었다. 그녀를 바래다주고 바깥을 빙빙 돌며 시간을 때우던 적도 있었다. 한 두어 번 그녀를 따라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았고 그때마다 하얀 벽과 붉은 제대, 십자가 상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기 보다는 차가움과 알지 못할 두려움으로 다가왔었다. 마음 부칠 곳이 없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녀였기에 한동안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던 시기에는 그녀의 성당 출입을 막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성당을 다녀오면 마음을 잡는대거나 좀 편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었다. 또한 신부에 대해서는 일말의 존경심이랄까, 나와는 완전히 다른 곳에 서서 불쌍한 목자들을 돌본다는 그 고유의 역할들을 인정해주고 싶었다.

“커피 올려놓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시지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모멸감, 배신감. 주먹이 불끈 쥐어지며 한 대 치고 싶었다. 그녀의 면상을. 인사를 시키려던 남자는 고개를 들어 똑바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엉거주춤 청바지에 손을 찢러 넣은 채 고개를 까딱했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고개를 숙인 자세였던가. 그들은 어떻게 이 작은 도시를 아직 떠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곳에 발을 붙일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다. 그녀가 내게 이혼을 요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며 한푼의 양육비도 요구하지 않았을 때는 며칠 후면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하였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되지 않았고 머리 속은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엉켜 어느 곳에서도 실마리를 찾아 내지 못했다. 해결의 끈을 찾지 못한 감정들은 더욱 뒤죽박죽이 되어 분노와 배신감과 피해 의식들로 점점 엉켜갔다.

며칠은 몇 주가 되었고 다시 몇 달로 이어진 시간들은 아주 천천히 갔다. 그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 분노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녀가 모든 것을 이해해 달라며, 혹은 그녀의 행동을 용서해 달라며 머리를 기울여 기대어 온다고 해도 가슴을 열거나 어깨를 내주며 기대라고 할 자신이 없었다. 함께 살 때는 몰랐는데 막상 그녀의 그림자가 겹치고 보니 분함과 동시에 허탈하고 또 한편으로는 홀가분했다. 고나 할까, 처음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차갑게 가라앉으며 편안해졌다.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지나온 세월동안 내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감정의 부채가 없었다. 그곳에서 그들을 그렇게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신부는 뜨거운 커피를 앞에 놓는다. 짙은 향에 머리가 맑아지는 듯하다. 마실 것을 또박또박 말을 끊으면서 권한다. 감정의 흥분과 말의 거침을 막아보려는 의도이리라.

“말이 됩니까? 내 신랑이에요. 인사하세요.”

신부는 묵묵히 내 웅변을, 항변을 들어준다. 한 모금, 목울대를 타고 넘어가는 커피가 따뜻하다. 조금 마음이 진정된다.

“인간이라면 그런 장소에서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먼저 마켓 안에 있었던 말입니다. 마켓이 뭐 그리 큰 것도 아니고, 다 보이는데.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였으니까 다가와서 인사를 시키려했던 것 아닙니까. 나 같으면 안 들어가지요. 아니 못 들어가지요. 혹 어찌되어 맞닥뜨렸다고 합시다. 난 모르는 척, 지나쳤을 껴요. 나 그 남자, 그 날 처음 봤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척 지나쳤더라면 나도 같이 모르는 척 해주었을 껴요. 지가 무슨 미국 년이나 된다고 인사를 시켜요, 시키길. 그럴 수 있습니까? 밥맛이 죠, 아주 밥 맛…….”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찌 그리 뻔뻔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신부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발끝을 까딱거릴 뿐, 뭐라 말이 없다.

“신부님. 뭐라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그것들을 이해하십니까? 내가 그것들을 이해해야 합니까?”

“뭘, 꼭 원수가 되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있고 한데…….”

“원수? 원수보다 더하지요, 그년…….”

다시 목소리가 높아지며 말이 빨라진다.

“신부님! 당신은 그게 실천이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신부, 당신이라면 그들이 이해되고 용서되고……. 하기사 신부, 당신이 보통 사람들의 애증을 온전히 이해하겠습니까? 혼자서…….”

“혼자라서 모르는 것이 많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게는 가재 편이라고 그년 편을 드는 겁니까? 그년이 이 성당에 다닌다고.”

“이년, 저년, 하지맙시다. 영 불편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무언지, 왜 저를 찾아 오셨는지 그것이나 말씀해 보시지요.”

말문이 막혔다. 두서없는 감정의 기복과 노여움이 앞서 무슨 도움을 원했는지 나 스스로도 알 수가 없다.

“뭘 도와 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하도 분하고 기가 차서. 성당에 다닌다는 것들이 어찌 그럴 수 있나 싶어서. 그전에도 그녀는 늘 그런 식이었습시다. 쓸쓸하다거나 마음 부칠 때가 없다거나 하면서 성당에 다녀와야겠다고,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면 기분이 좀 나아진다고요. 또 신부님과 면담이란 것을 하고 오는 날엔 많이 밝아져서 제게 씩씩하게 굴기도 했습니다. 성당이란 곳이 무슨 인생 상담소 같기도 하고, 면담이란 것이 카운슬링 정도 되는 줄 알았지요. 그렇다고 지금, 신부님한테 무슨 인생 상담하러 온 것은 아니고, 누군가에게 이 심정을 털어놓고 싶은 것 뿐이지요, 가능하면 그녀를 알고있는 사람이야 할 것 같고……. 그녀의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군요. 성당에서 그리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을 거라는 것, 특히 신부님이 그리 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신부님은 들어주실 것 같고, 또 상황을 아셔야 할 것도 같아서요.”

“제가 알아야 할 이유는 없겠지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계속 하십시오.”

신부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의 푸념을 들어주는 것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구하는 심정일까? 아니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녀의 편을 들어 줄 요량일까. 그 어느 쪽이라도 지금은 그녀에 대한 분기를 누군가에게 털어 놓아야 한다. 상대가 누구라도 상관없다.

기도를 한다며 이층 작은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그고 몇 시간이고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10년도 더 되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녀 혼자 있고 싶어하는 시간을 인정해 주고 싶었다. 실리콘 벨리에 붙어닥친 한파는 사막을 지나 록키 산맥의 끝자락인 실리콘 마운틴까지 붙어왔다. 그리고 나에겐 실직자라는 타이틀을 걸어주었다. 한기를 이기지 못했던 이후, 시간이 넉넉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운전사와 일종의 주부의 역할들은 자연스레 내게 넘겨졌고 난 그것들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민 일세대가 늘 그렇듯 20년 전 부터 열심히 사는 것 말고는 다른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난 할 말이 없다. 자상하지 못한 남편이었다고 해도 그녀 또한 나에게 살갑게 구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늘 직장 일에 시달리고, 아이들 치다꺼리에 바쁘고, 일요일이면 성당을 나가 하루 종일 지내다 오는 극히 평범한 이민 가정의 한 아내였다.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도 성당을 나가는 것을 말할 수 없었던 것은, 그나마 성당을 다녀온 날이면 그녀의 짜증이 훨씬 덜했고 그녀의 기분이 좀 더 나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결혼생활의 뼈적거림은 어느 날 어느 시간부터 시작이었던 것일까. 어쩌면 신혼 여행의 그 시간부터이었을 수도 있다. 그녀의 고백을 들은 후 그녀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180도 변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대학 졸업반이던 그녀와 '맞선'이라는 것을 보았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전화와 편지 속에서 결혼을 서둘렀다. 만남이 길지 않았던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은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청순의 이미지로 내게 다가 왔고 성실하게 공부했던 장학생으로 객관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 객관성을 믿었다. 그 믿음을 산산이 깨어버린 신혼 여행이었어도 난 내 믿음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것 같다. 그러

나 그녀는 마음이 가는대로 마음을 방치했고, 두고 온 과거에 매달려 우울 속으로 침잠했다. 아무리 되짚어 봐도 무엇이 나의 문제였는지 알 수가 없다. 가끔 까탈을 부렸던 것은 남자면, 아니 인간이면 누구나 작은 것에도 꼬투리를 잡아보려는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살면서 아주 사소한 것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주고, 또 다독이며 치유를 받으며 사는 것이 인생살이일 것 같은데.

‘그녀의 첫날밤 고백이 없었더라면.’하는 생각을 떨칠 수는 없지만 그녀의 고백 이후 한번도 그 이야기를 되짚은 적은 없다.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을 잡고 내 인생을 통제로 거래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 날 밤 들었던 이야기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불쑥불쑥 삶 속에서 튀어 나와 나를 불편하고 못 견디게 했다. 그런 날이면 난 종일 잔디를 자로 켜 듯 깎거나, 카펫의 어느 한 부분에도 얼룩이 없게 물베습을 하거나, 차고 선반 위의 연장들을 반들거리게 닦아 일렬로 가지런히 놓았다. 그녀의 ‘긴 한숨, 비밀스런 언행들’에 스스로 맞서는 방법이었다. 나의 청소와 정돈이 시작될 때마다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나의 행동들을 지켜보았다.

신혼 여행, 첫날밤을 지낼 호텔 방에는 장미꽃 장식이 된 흰색 삼단 케이크와 샴페인이 작은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흰색 쉬폰 커튼과 흰색 침대커버. 온통 순백으로 장식돼 있던 사월의 저녁.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아주 또박또박 그녀의 사랑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대학 일학년 첫 미팅에서 만났던 남자,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게 사랑했지만 둘 다 너무 가난해 장학생이 아니면 공부를 할 수 없었고, 서로의 장래를 위해 헤어지기로 했단다. 여자는 유학을 위해 미국행을 할 수 있는 남자를 택했고 남자는 노동을 팔기 위해 중동으로 떠났단다. 그리곤 슬프게 아주 슬프게 울면서 그녀를 받아

주어 고맙노라고, 무슨 신파극의 한 장면 같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묻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첫날밤의 삼페인을 앞에 놓고 앉아서 해야했던 이유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케이크에 켜 놓았던 작은 초들이 각각 선홍색으로, 검푸른 빛으로 녹아내리며 얼룩이 졌다. 장미꽃 장식들도 녹아내리는 초들의 열기에 시들어갔다.

그녀의 말을 끊고 싶었어도 그녀는 너무도 장엄한 ‘고백성사’처럼 이어갔기에 막을 수가 없었다. 마스크라와 화운데이션 범벅이 되어 흘러내리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 그녀가 내게 털어놓았던 고백성사는 새벽이나 되어야 끝났다. 그녀가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누웠어도 그녀의 곁에 나란히 누울 수가 없었다. 이미 싸늘하게 식은 마음, 고행은 이미 그 때부터 예고되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삼일의 신혼 여행동안 그녀의 고백을 들은 것 말고는 더 이상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혈서를 쓰는 심정이라고 했던가.

일주일 후 미국행 비행기를 탔고 준비되었던 일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진행되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가슴에 무거운 추를 단 것처럼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지며 묘한 반동을 일으키는 것이 감지되었지만, 나 하나를 믿고 따라온 그녀를 최대한으로 감싸 안고, 함께 가기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인생의 설계를 시작할, 철이 들 무렵, 난 생각했었다. ‘아름다운 가족, 평화로운 가정’ 꾸리겠다고. 꼭 지대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쳐야 인생의 값어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작고 평범한 것들은 소박한 들꽃처럼 다가온다. 짙은 향기가 아니더라도 가벼운 바람에 흔들리며 나풀거리는 들꽃은 잔잔한 그림 같다. 은은한 그림은 오랫동안 싫증이 나지 않게 제자리에 걸려 있는 것만으로도 제 몫을 다한다. 내 인생

은 들꽃이어도 좋았다. 그러나 그 작은 꿈이 가뭄에 버려진 산야처럼 황폐해질 줄 그때는 정말 몰랐고, 준비하지도 못했다.

그녀의 임신을 안 것은 여름도 한참 지나 서늘한 바람이 불어 들던 날이었다. 그녀를 위해 진실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한숨은 점점 깊고 길어졌고, 점점 말을 잃어갔고 얼굴마저 검어져갔다. 살갑게 굴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했다. 그녀는 첫날밤의 약속과는 달리 매사에 냉소적이었고 사소한 일들에도 무엇인가 감추는 것들이 많았다. 가슴을 열고 하는 대화란 존재하지 않았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겠다는 그녀의 약속은 어디에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유를 채근하듯 소리내어 묻고 싶지 않았던 것은 최소한의 자존심이었다. 감싸안고 따뜻해지면 그녀도 좋아지리라 믿었다. 그러나 노력하는 만큼, 힘든 것도 사실이었다. 소리를 지를 수 없는 침묵의 무게는 그 어느 것보다도 무겁다. 내려놓을 수 없는 침묵, 대화를 하지 못하는 관계란 왜 필요한 것인가.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떠넘기고 싶지 않았다. ‘가장’이라는 자리. 나의 이름을 가질 아이,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싶었다.

그녀는 시간만 되면 성당을 간다며 집을 나섰다. 그것마저 말리면 그녀는 우울증이 심해질 것 같았고, 내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책임감에서 그녀의 외출을 말리지 못했다. 어떤 날은 그녀의 침묵과 한숨의 깊이는 땅이 커질 듯 깊었고, 멍청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거나 꼼짝도 않고 같은 자세로 몇 시간씩 소파에 벌레처럼 웅크려 앉아있기도 했다. 또 어떤 날은 성당에서 좋은 분들을 만났다면 아주 고조된 기분으로 아일 갖은 임산부답게 준비하는 말들을 조금은 수다스럽게 늘어 놓기도 했다. 그럴때 그녀의 장단을 맞추어주며 그 감정과 기분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애썼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성애라는 것

이 있으니까 좀 낫겠지' 싶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 젖을 물고있는 아이의 모습이 문득 낯설었다. 의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득 스쳐간 육감 같은 것으로 그녀를 몰아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 번 빠들어진 시선은 쉽게 교정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의 잠투정을 핑계로 옆방으로 건너갔다.

주위 사람들은 예쁜 색시 얻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고 좋겠다고들 했다. 그녀는 옆 방으로 건너간 후 아이의 돌이 될 때까지 한번도 내 침대 안을 찾아들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인지도 몰랐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손을 좀 덜 타자 그녀는 하고 싶었던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집을 나섰다. 막을 수 없었던 것은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해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 최소한의 믿음도 없는,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결혼 상태. 그것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래도 내 스스로가 이 불편한 관계를 그만두자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녀는 이곳에 혼자라는 '측은지심'이 나의 발목을 단단히 조여 매고 있었다. 그녀의 학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둘째 아이의 임신을 알았다. 그녀는 미련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 일에 매달렸다. 우리 가정엔 늦은 평화가 온 듯 했다. 내가 견디었던 시간들이 평화로 보상되고 이제, 오래 오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듯했다.

그녀는 정당한 이유들로 집을 나섰고, 별달리 살갑게 굴지 않았어도,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것 아니냐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그녀의 긴 꼬리가 잡힌 것은 처형이 다녀간 뒤였다. 두 자매가 속삭였던 비밀은 밤 말을 듣는 쥐가 되어 내게도 들렸다. 그 남자에 대한 소식을 처형은 어찌 그리 자세히 알고있는지. 그녀의 지갑에서 쓰다만 전화

카드를 열 개 이상 발견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그 얼떨떨하던 기분, 나는 오랫동안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녀에게 닭달을 하며 따질까도 생각했지만 그것은 내 식의 방법이 아니었다.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그녀에게 따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온통 신경은 그녀의 행동과 말투 하나 하나에 뽀족한 더듬이를 날카롭게 세우고 있었으나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청소와 정돈은 그 강도를 더해갔다.

어느 봄날, 처형은 마당가의 목련들 사이로 그 남자의 이민 소식과 동시에 그의 아내의 죽음을 전했다. 아직도 그녀의 가족 주위를 맴도는 그 남자의 처신도 문제겠지만 제 동생을 위한다며 그 남자의 근황을 전해 주는 처형의 태도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봄바람을 타고 그녀의 마음은 다시 산란해졌다. 아이들 둘은 엄마의 방황으로 인해 무방비의 상태로 유아원으로, 유치원으로 밀려났다. 난 최대한의 노력으로 아이들을 지키기에 애썼다. 방과 후의 과외 활동들과 운동, 심지어는 학부모 회의까지 참석하며 아이들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려했다. 심하게 우울해하는 그녀가 심한 상사병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향수병에 의한 우울이라고, 정신과 상담이나 신부와의 면담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겨울 얼음 방석을 깔고 앉은 듯한 그녀는 어느 것에도 녹아내리거나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한여름, 집안으로 불어 들던 냉기에 난 포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시달렸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혼자가 아니고 둘이란 것은 또 무엇이며, 가족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민 초기,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내가 생면부지의 이곳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 하는 놀음 뿐이었다. 혼자 대학을 찾아가고,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 섞어가며 발버둥을 쳤던 시간들. 내 옆은 늘 비어 있었다. 아무도 내게 먼저 말을 걸

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 쓸쓸함에 시리던 내 뼈 속. 부모님들은 사는 것에 바빴고 나는 그렇게 혼자 일어서야 했다. 오뚝이처럼 실패와 되서기를 거듭하며 누군가라도 있었으면 싶었다. 돌이면 낫지 않을까. 기댈 수 있는 비슷한 크기의 나무 등걸은 잘 넘어지지 않는다. 그 밑에 서 작은 가지가 나고 그림자가 생긴다면 더 좋을 것 같았다. 그건 나의 너무 커다란 욕심이었던가. 누구라도 한번쯤 해볼 수 있는 소박한 꿈은 아닌가. 남들은 그보다 더 거창한 꿈을 꾸는 것 같은데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런데 나의 작은 꿈은 왜 그리 힘들었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나의 몫은 너무 하잘 것 없는 것인가.

막상 그녀가 집을 나가자, 준비하고 각오하고 있었던 내 마음이 심하게 요동쳤다. 참혹했다. 그녀를 위해 최대한 베풀고 이해하고 감싸려고 했던 시간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말인지. 아무리 사랑이 없는 결혼생활이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있는데 어찌 그리 무책임할 수 있을까. 제 감정대로 뛰쳐나가면 된단 말인가. 그녀가 죽일 듯 미웠다. 쫓아가서 칼부림이라도 해야 할 정도로 몸서리쳐졌다. 내 지금까지의 인내와 노력은 무엇이란 말인가, 결국 이 최악의 사태까지 와야했던가. 지난 시간에 대한 회의와 그녀에 대한 증오와 질투에 몸부림치고 진저리쳤다.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아무 것도 잡을 수 없는 절벽이었다.

두어 시간 울분을 토하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하다.

“신부님께라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어떤 짓을 했을지 저도 모릅니다. 사람이란 참으로 악한 동물이고 감정적인 동물 이거든요. 그렇다고 협박은 아니구요. 그냥 그럴 수도 있었을만큼 제가 분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신부님이 제 말에 장단을 맞추어야 될 이유는 없

지만 그래도 좀, 제 편을 들어주시면 어디가 덧납니까? 하기사 그녀가 이 성당에 다니는데, 그들 편에 서야하겠지요. 그래도 엄밀히 말하면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 편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라? 누가 피해자인지 전 잘 모르겠네요. 우리 자매님의 입장에선 자매님이 피해자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분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녀가 피해자라? 당신 성당에 나온다고 그들 편만 들면 안되지……. 하기사 그녀가 온갖 것, 신부인 당신에게 고백인지 상담인지 했으니. 그래, 신부 당신이 미리 알고 있었던 이야기라 하자. 그래서 그들 편을 든단 말이에요?”

“그들이라니요? 무슨 편 갈라 편 싸움하자는 것도 아니고……. 듣기 무척 거북하군요.”

“그래. 그녀가 이미 당신한테 고했을 테고, 그러면 당신은 신부가 되가지고 말렸어야 하는 것 아니요. 그녀가 짐싸 갖고 나갈 때 말이에요, 말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천주교선 이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린다고 다 된다면, 신부하기 편하겠어요.”

“그래도 신자가 막가파로 나가면 말려야 하는 게 교회의 도리 아닌가요?”

“자매님은 자매님의 입장이 있으신거죠. 자매님도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참회하고, 벌을 청하곤 했지요.”

“눈물로 기도……. 그런 건 곧잘 집에서도 했지요. 물론 모든 것이 보여주기 위한 쇼였지만……. 기도한다고 이층에 올라가 그놈에게 전화질 한 것도 아십니까?”

신부의 흔들림없는 몸가짐과 낮은 목소리가 날 더 화나게 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심정이었다. 신부가 조

금만 내 편을 들어주며 그녀를 질타했다더라면 성당 내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있을 그녀의 자리가 조금은 측은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신부는 끝까지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 했다.

그래 모두 한통속인 게야, 그렇겠지. 교무금 꼬박 꼬박 내고 제 말 잘 듣는 신자가, 이런 신 새벽에 찾아와 문 두드리며 하소연하는 낯선 사람보다는 백 번 낫겠지. 신부 입장에선 그녀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일 수도 있겠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것일까. 이미 플랫폼을 떠난 기차는 긴 기적 소리를 울리며 돌아오지 않을 곳을 향해 떠났다. 인생은 언제나 일방 통행이다. 지나온 길을 거꾸로 가려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들은 그들만의 과거에 매달려 나의 현재를 보기 좋게 몽개어 놓고 말았다. 난 영원히 그들 과거에 대한 희생물이다.

내가 이 작은 도시를 못 떠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곳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녀가 나간 후 줄곧 명치끝에 달려 있던 것, '나의 잘못은 무엇인가'라는 의문. 오늘 신부와의 한판을 통해 답을 얻어보려 했으나 그것도 실패다. 신부는 말을 극히 아끼는 것으로 철저히 그녀의 편에 서서, 방패막이가 되 주었다.

또한 한푼의 위자료를 신청하지 않은 것들은 또 무슨 뜻인가. 당당해 보이겠다는 것인지. 나의 실직이 어찌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나빠진 상황들을 이용해 그녀는 그녀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무능력한 가장이라는 자괴감이 스스로의 고통을 배가 시켰는지도 모른다. 명퇴가 되지 않고 가장의 자리를 잘 지켰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까.

이제 다시는 사람을, 아니 여자를 못 만날 것 같다. 일거수일투족이 의심의 눈으로 보여질 테고 행동의 하나하나가 작은 퍼즐 조각이

되어 일상을 어지럽힐 것이다. 그녀와 살았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녀에게 신뢰를 가졌던 것은 아주 짧은 세월 뿐이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던 시절 '나무꾼과 선녀'에서처럼 하늘로 날아 올라가지 못할 줄 알았던 그 짧은 시간. 그 외에는 나 나름대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의심하고 옥죄며 날개를 꺾어버리려 했었다. 조임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녀는 심하게 푸덕거렸고 상처를 만들었다. 상처는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덧나고 안으로 깊이 굶아 들어갔다. 썩는 가슴은 그녀의 몫만은 아니었다.

웃음을 잃은 가정 속에서 버티고 있는 가족 모두는 심하게 우울해 했고 고통에 짓눌려야 했다. 돌파구는 역시 그녀 스스로가 찾아냈고 그들은 보기 좋게 나에게 케이오페의 강편치를 날렸다. 작은 동네의 소식통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자주 가십으로 만들어 이곳 저곳에 뿌렸다. 그런 이야기를 건네들을 때마다 저주의 소리를 퍼부으며 미친 것들로 치부했고, 나의 그 악담들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부메랑을 되잡기에 지금의 난 너무도 역부족이다.

신부는 다시 커피를 따른다. 천천히 마시는 커피 향은 처음 따랐을 때보다 훨씬 쓰고 진하다. 모든 것이 부질 없다. 그녀를 미워하거나 그들의 불행을 바란들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은 없다. 이 아침의 분노도 이 시간을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 내게 남겨진 시간들은 그저 나의 몫일 수밖에 없다. 자리에서 일어서자 신부는 내 손을 한 번 잡았다 놓는다. 아무런 위로의 말을 듣지 못한 채 사제관을 나선다. 사제관과 이어진 성당의 벽면에는 들어갈 때는 보지 못했던 동판 조각들이 걸려있다. 아주 천천히 걸으며 그 모형들을 들여다본다. 벽의 공간들에 비해 너무 작은 조각들로 표현되어 있는 예수 고난의 길. 옆

에서 있던 신부가 천천히 작은 목소리로 설명을 한다. ‘지고 가는 십자가의 무게에 못 이겨 넘어지고 또 넘어지길 세 번, 죽음의 동산으로 오르는 길은 참으로 험했다’고. 그녀는 나의 십자가일까. 벗어 버렸다가도 또 지워지는 십자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지는 나의 육신, 예수는 함께 지고 갈 시몬도 있었고 얼굴을 닦아드리는 베로니카도 있었지만 나에겐 지금 아무도 없다. 그냥 지고 가야할 고통만 있을 뿐이다. 허리가 휘어지고 어깨가 문드러지고 다리가 휘청거려도 한번 진 것은 겹세마니 동산, 그곳까지 지고 올라야 한다. 그리고 제가 지고 왔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성당 밖의 해는 이미 중천 가깝게 올랐다. 햇살을 받은 성당 창문의 스테인드 글라스들이 아름다운 색깔로 반사된다. 예수는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성당 안으로 가득히 모여든다. 아침은 밝았고 낮은 또다가 온다. 이어지는 것은 어둠일 것이고 내일 아침은 또다시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차에 오른다. 시동을 걸며 신부가 손을 잡으며 건네준 것을 펼친다. 기도하는 두 손 사이로 십자가가 그려진 그림이고 뒤편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요한1서 2:15)” 옆자리의 구겨진 신문지들 사이로 던져 넣는다. 세상이나 세상 것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다. 내겐 그것의 부정보다는 그것을 이기는 것이 중요했다. 아니, 내가 사랑한 것은 세상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꿈을 사랑했고 누군가와 그 꿈을 함께 가꾸고 싶어했던 것이 나의 오류라면 오류였다. 꿈에서 깨어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깨어난 마음은 무척이나 허망하고 당혹스럽다. 차는 서서히 성당을 돌아 나간다. 하늘은 그저 푸르기만 하다.